



저작자표시-비영리-변경금지 2.0 대한민국

이용자는 아래의 조건을 따르는 경우에 한하여 자유롭게

- 이 저작물을 복제, 배포, 전송, 전시, 공연 및 방송할 수 있습니다.

다음과 같은 조건을 따라야 합니다:



저작자표시. 귀하는 원저작자를 표시하여야 합니다.



비영리. 귀하는 이 저작물을 영리 목적으로 이용할 수 없습니다.



변경금지. 귀하는 이 저작물을 개작, 변형 또는 가공할 수 없습니다.

- 귀하는, 이 저작물의 재이용이나 배포의 경우, 이 저작물에 적용된 이용허락조건을 명확하게 나타내어야 합니다.
- 저작권자로부터 별도의 허가를 받으면 이러한 조건들은 적용되지 않습니다.

저작권법에 따른 이용자의 권리는 위의 내용에 의하여 영향을 받지 않습니다.

이것은 [이용허락규약\(Legal Code\)](#)을 이해하기 쉽게 요약한 것입니다.

[Disclaimer](#)

석사학위논문

고등학생의 학교생활적응과
진로적응력의 관계에서
진로결정 자율성의 매개효과

제주대학교 교육대학원

상담심리전공

김 정 완

2018년 8월

고등학생의 학교생활적응과 진로적응력의 관계에서 진로결정 자율성의 매개효과

지도교수 김 성 봉

김 정 완

이 논문을 교육학 석사학위 논문으로 제출함.

2018년 6월

김정완의 교육학 석사학위 논문을 인준함.

심사위원장 _____ (인)

위 원 _____ (인)

위 원 _____ (인)

제주대학교 교육대학원

2018년 8월

<국 문 초 록>

고등학생의 학교생활적응과 진로적응력의 관계에서
진로결정 자율성의 매개효과

김 정 완

제주대학교 교육대학원 상담심리전공

지도교수 김 성 봉

본 연구는 고등학생의 학교생활적응과 진로적응력에 대해서 알아보고자 하며, 주요 매개변인으로는 진로결정 자율성을 살펴보았다. 본 연구의 목적은 다음과 같다. 고등학생의 학교생활적응, 진로결정 자율성, 그리고 진로적응력, 이 세 가지 변인의 관련성이 무엇인지 살펴보고, 고등학생의 학교생활적응이 진로결정 자율성을 매개로 진로적응력에 영향을 미치는지 확인하고자 하였다. 이를 통해 학교 현장에서 진로결정 자율성을 증진 시키는 적절한 지도방안 및 프로그램 개발과 진로상담에 활용될 수 있는 기초자료를 제공하고자 하였다.

이를 확인하기 위한 연구대상은 제주시 소재 고등학교 5곳에 재학 중인 1, 2학년 남녀학생 총 800명을 표본으로 선정하였다. 조사도구로는 학교생활적응, 진로결정 자율성, 진로적응력 3가지 영역과 응답자의 일반적 특성을 묻는 영역을 포함하는 설문지를 제작 후 사용하였다. 학교생활적응, 진로결정 자율성, 진로적응력은 선행연구에서 사용된 도구 중 본 연구의 목적에 부합되는 것으로 판단되는 측정도구를 활용하였다.

자료수집은 2018년 3월 21일부터 3월 29일까지 각 반 담임교사에 의해 실시되

었다. 총 800부 중 789부가 회수 되었고, 이 중 척도 1개 이상을 응답하지 않거나 동일한 반응 및 이상치 응답 등의 불성실한 18부를 제외한 771명의 자료를 최종 분석에서 사용하였다.

자료분석은 SPSS 18.0 프로그램을 이용하였다. 조사대상의 일반적 특성과 각 변인의 평균, 표준편차, 빈도, 백분율 등의 수준을 구명하기 위한 기술통계분석과 측정변수 간의 관계를 보기 위하여 상관관계분석을 하였고 학교생활적응과 진로적응력의 관계에서 진로결정 자율성의 매개변인 역할을 보기 위해 회귀분석을 통한 매개효과 분석법을 사용하고, Sobel 테스트를 통해 유의성을 검증하였다.

자료분석을 통해 얻어진 연구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학교생활적응, 진로결정 자율성, 진로적응력 간에는 모두 정적 상관관계를 보였고, 학교생활적응과 진로적응력의 상관관계가 특히 높았다.

둘째, 학교생활적응과 진로적응력의 관계에서 진로결정 자율성은 부분매개역할을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본 연구의 결과는 고등학생의 진로적응력 향상을 위한 효과적인 지도 및 상담 방안에 대한 방향성을 제공할 수 있을 것이라 기대한다. 긍정적으로 학교생활적응을 하는 학생은 고등학교 생활 동안 자신의 흥미와 적성을 더 적극적으로 찾고, 계발하는 경험을 할 수 있다. 특히, 자신의 내적동기에 따라 즐겁고 자율적으로 자신의 진로를 선택, 결정하게 된다면 급변하는 직업 환경에 보다 더 능동적으로 대처할 수 있게 된다. 따라서 고등학생의 진로적응력을 향상시키기 위해서는 학교생활적응을 도모하는 것과 더불어 진로결정 자율성을 향상 시키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고 하겠다.

주요어 : 학교생활적응, 진로적응력, 진로결정 자율성

목 차

I. 서 론	1
1.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1
2. 연구문제	6
3. 용어의 정의	7
II. 이론적 배경	8
1. 학교생활적응	8
2. 진로결정 자율성	10
3. 진로적응력	12
4. 선행연구고찰	15
1) 학교생활적응과 진로결정 자율성의 관계	15
2) 학교생활적응과 진로적응력의 관계	16
3) 진로결정 자율성과 진로적응력의 관계	16
III. 연구방법	18
1. 연구대상	18
2. 측정도구	18
1) 학교생활적응	18
2) 진로결정 자율성	19
3) 진로적응력	21
3. 자료분석	22

IV. 연구결과	23
1. 조사대상자의 일반적 특성	23
2. 주요 변인들의 기술통계 분석	24
3. 성별, 학년, 학교유형 간 특성 차이	26
4. 주요 변인들의 상관관계	29
5. 학교생활적응과 진로적응력의 관계에서 진로결정 자율성의 매개효과	31
V. 논의	33
1. 결론 및 논의	33
2. 제한점 및 제언	35
참고문헌	36
Abstract	45
부 록	47

< 표 목차 >

<표 1> 학교생활적응 척도의 구성	19
<표 2> 진로결정 자율성 척도의 구성	20
<표 3> 진로적응력 척도의 구성	21
<표 4> 조사대상자의 인구통계학적 특성	23
<표 5> 학교생활적응의 평균과 표준편차 및 왜도, 첨도	24
<표 6> 진로결정 자율성의 평균과 표준편차 및 왜도, 첨도	25
<표 7> 진로적응력의 평균과 표준편차 및 왜도, 첨도	26
<표 8> 학교생활적응에 대한 독립표본 t 검정	27
<표 9> 진로결정 자율성에 대한 독립표본 t 검정	27
<표 10> 진로적응력에 대한 독립표본 t 검정	28
<표 11> 학교생활적응, 진로결정 자율성, 진로적응력의 상관관계	30
<표 12> 학교생활적응과 진로적응력의 관계에서 진로적응력의 매개효과	31

< 그림 목차 >

[그림 1] 진로결정 자율성의 매개효과 연구모형	6
[그림 2] 진로결정 자율성의 매개효과 분석	32

I. 서론

1.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상상력과 창의력을 핵심으로 여기는 현대 사회는 융복합 시대로 발전하고 있다. 학문 간의 경계가 사라지며 여러 분야에서 융복합적인 시도가 이루어짐에 따라 유연하고 개방적인 사고와 예술적 감수성을 가진 창의융합형 인재를 양성하는 교육과정으로의 변화를 요구하고 있다. 교육부는 이러한 시대적 요구에 부응하여 2015 개정 교육과정을 확정·발표하였고 핵심역량기반의 교육을 통해서 융복합 시대에 필요한 창의융합형 인재를 양성하고자 하였다(윤찬미, 2018). 2015 개정교육과정에서 교육과정이 추구하는 인간상 중 진로교육과 관련된 인간상은 ‘전인적 성장을 바탕으로 자아정체성을 확립하고 자신의 진로와 삶을 개척하는 자주적인 사람’으로 4개의 인간상 항목 중 첫 번째로 제시되어 진로교육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있다(국가교육과정 정보센터, 2015). 교육부(2013)는 진로교육을 ‘학생들이 자신의 진로를 창의적으로 개발하고 지속적으로 발전시킴으로써 성숙한 민주시민으로서 행복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역량을 길러주는 체계적·계획적·의도적인 교육활동’으로 정의하였다.

Super(1951)는 일생을 구성하는 사건들의 과정으로 진로를 정의하면서, 개인의 진로는 각자 독특하고 역동적이며 일생을 통해 전개, 발달한다고 설명하였다. 이러한 진로발달의 관점에서 보면 청소년기는 자신의 진로를 본격적으로 탐색하고 준비하는 시기이다. 초등학교 시기에는 올바른 직업 가치관을 형성하고 직업의 종류에 대하여 탐색하는 과정을 거친 후, 다양한 직업에 대한 지식을 쌓으면서 진로의사결정기술을 익히는 중학교 과정을 거쳐, 고등학교 때는 현실적인 요인들을 생각하여 잠정적으로 진로를 선택해야 한다(김봉환, 정철영, 김병석, 2006).

조봉환(2015)은 최근 진로교육이 한층 강화된 2015 개정교육과정의 도입과 진로진학 상담교사제 운영, 학교 진로교육 목표와 성취기준 마련, 중학교 자유학기제 시행, 진로교육법 공포 및 시행 등으로 학교 진로교육은 그 필요성이 국가수준에서 강조되고 있을 뿐 아니라 이를 법적으로 뒷받침할 법적 제도적 시행의

근거까지 국가 수준에서 마련되고 있음을 말하면서 학교교육의 중요성에 대해서 언급했다. Marland(1974)는 모든 교육은 진로교육이며 또한 그렇게 되어야 한다고 강조하면서, 지속적이고 체계적인 진로교육을 위한 학교교육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또한, 대학 입시제도에 의해 많은 대학에서 고등학생 지원자들에게 각자의 우수성을 입증하기 위한 자료로써 진로와 관련된 교과 및 비교과 활동을 요구하고 있고 그러한 활동을 장려하고 있다. 즉, 이제는 원하는 대학에 진학하기 위해 공부만 잘하면 되는 것이 아니라 진로에 대한 심도 깊은 고민을 바탕으로 진로를 탐색하고 몰입해야 하는 상황이 된 것이다. 따라서 고등학생에게도 대학생만큼 진로를 결정하고 이를 실현하는 것이 현실적인 당면 과제가 됐다(최동민, 2015).

이러한 교육 환경의 변화 속에서 요구되는 능력은 변화하는 환경과 상호작용을 통하여 조화로운 균형을 유지하며 삶의 질을 향상시켜 나갈 수 있는 창조적인 적응능력이다. 특히 아동기에서 성인기로 발달해 가는 과정에 있는 청소년들은 인지적, 정서적, 사회적 측면에서 급격한 변화를 경험하게 되고, 따라서 새로운 도전과 과업들을 더 많이 겪게 된다. 청소년들이 여러 가지 개인 내·외적인 도전들로 인한 긴장을 적절하게 해소하고 환경과 조화롭게 균형을 이루며 건강하게 성장하기 위해서는 직면하는 많은 문제와 어려움을 효과적으로 다룰 수 있는 적응능력의 성취와 증진이 중요한 발달 과업이라 할 수 있다(성선진, 2010). Atwater(1979)는 개인이 환경에 순응하는 수동적인 관계 이상으로 개인과 환경이 능동적으로 상호작용하는 관계가 뛰어나고 건강한 적응이라고 정의했으며, 자신의 개인적인 욕구를 충족시키며 잠재력의 개발도 촉진시킬 수 있는 방향으로 자신과 환경을 능동적으로 조절해 나가는 창조적 과정이라고 설명한다.

학교생활적응은 학교라는 환경 안에서 개인의 욕구를 충족시키고자 환경을 변화시키는 한편, 학교 환경의 요구에 따라 자신을 변화시킴으로써 학교환경과 개인 사이에 균형과 조화를 이루려는 적극적이고 창조적인 상호작용 과정을 의미한다(Bierman, 1994). 학교생활 적응 연구는 크게 환경적 요인과 개인 내적 요인으로 구분된다. 환경적 요인에 대한 연구는 사회적지지 범주에서 가정과 학교로 구분되지만, 큰 틀에서는 문제 예방적 관점에서 부모, 친척, 교사, 형제와 같은 의미 있는 타인과의 대인관계에서 얻을 수 있는 긍정적 자원과 관련된다(최미경,

2014). 기존의 학교생활 적응 연구가 사회적 지지 범주에서 부모, 친척, 교사, 형제 등 의미 있는 타인 지지에 초점을 두어 왔지만 타인 지지는 그것이 개인에게 지각되지 못할 경우 큰 효과를 기대할 수 없고, 시간이나 상황적 변수에 따라 유동적이다. 따라서 개인의 적응을 돕기 위해서는 인지적인 차원에서 지각을 새롭게 하거나 바람직하게 변화시켜 적응을 돕는 개인 내적 지지가 더 안정적인 효과를 가져 올 수 있다(Herzberg, 1999). 개인 외적 요인보다 개인 내적 요인을 변화·증진시키는 것은 스스로의 변화에 초점을 두기 때문에 지속적이고 안정적인 효과성을 기대할 수 있다.

개인 내적요인에 대한 선행 연구를 살펴보면 중학생의 자기효능감, 희망, 진로 의식성숙과 학교적응과의 관계를 알아본 김초선(2008)의 연구에서는 세 변인이 모두 학교적응을 유의하게 설명한다는 결과를 제시하였고, 진로성숙이 학교적응에 간접영향을 미치고 있음을 주장하였다. 또한 최보람(2008)은 중학교 3학년과 고등학교 1학년을 대상으로 한 소득수준, 진로성숙, 성취동기가 청소년의 학교적응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에 관한 연구에서 진로성숙도가 높을수록 학교생활적응과 학업성취도가 높았다고 하였다. 또한 진로결정 자기효능감이 진로장애와 대학 적응 사이에서 매개변인으로 작용한다는 연구결과(정애리, 유순화, 류남애, 2011)와 진로결정 자기효능감이 학교 적응과 유의미한 정적상관이 있다는 연구 결과도 있다(송영란, 2007; 최준집, 2009).

대부분의 시간을 학교에서 보내게 되는 고등학생의 생활을 볼 때, 개인을 둘러싸고 있는 주변 환경과의 지속적인 상호작용을 통해 이루어지는 진로적응력은 학교생활적응과 밀접한 관계가 있는 의미 있는 요인이다. 진로적응력은 진로 성숙에서 확장된 개념(Super, 1990)으로, 변화하는 직업 환경과 미래의 상황에 대처하는 능력이나 태도를 의미한다(Super & Knasel, 1981). 이는 예측할 수 있는 상황은 물론이고 직업 환경 및 사회적 변화로 인해 예측이 불가능한 상황에도 대처할 수 있는 준비성을 의미하는 것이다(Savickas, 1997). 장계영(2009)은 진로적응력과 유사한 개념으로 진로탄력성, 진로정체감, 진로효능감을 제시하였다. 선행연구에 따르면 진로적응력이 높으면, 진로 걱정이 감소하고(Creed, Fallon, & Hood, 2009), 진로에 대해 보다 주도적인 자세를 취한다고 하였다(조성연, 홍지영, 2010). 진로적응력이 높은 청소년은 직업 전환에서 성공적인 결과를 얻을 수

있으며(Creed, Muller, & Patton, 2003; Germeijs & Verschueren, 2007), 안녕감과 삶의 질(Hirschi, 2009)과도 정적 상관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와 같은 결과는 진로적응력이 청소년의 직업 적응과 삶 전반의 만족도에 긍정적 영향을 미치는 변인임을 반영하는 것이다.

최근에는 진로적응력과 진로와 관련된 여러 변인들 간의 상관관계를 규명하는 학계의 연구가 활발한데, 그 중 진로적응력 발달을 돕는 효과적인 변인으로 동기를 들 수 있다(Guay, Senecal, Gauthier, & Fernet, 2003; Guay et al, 2006). Deci와 Ryan(1985)은 동기를 내재적 동기와 외재적 동기로 구분하고, 동기는 자기결정성 수준에 따라 동일한 연속체 상에서 분류되며 자기결정성 이론의 핵심을 자율성이라 하였다. 자율성은 개인 스스로가 목표를 세우고 행동하게 하며, 자신이 부여한 가치에 따라 자신의 행동을 조절해나가도록 하는 것으로 내재적 동기와 그에 따른 수행을 증가시키는 요인이다. 자율성에 따른 동기가 높을수록 어려움에 처하더라도 인내심을 갖고 문제해결을 위해 노력하게 된다(Ryan & Deci, 2008). 자율성 획득은 청소년 발달과정에서 중요하며(Havighurst, 1948), 청소년기에서 성인기로 가는 과정에서 중요한 역할을 한다고 하였다(Noom et al, 1999). 외부의 기대나 압력에 의한 결정이 아닌, 자신의 진로를 자율적으로 결정할 때 자신이 선택하고 결정한 것에 대한 만족감과 즐거움을 얻을 수 있기에 고등학생의 진로결정에 있어 자율성은 중요한 변인으로 예측해 볼 수 있다.

선행연구에 따르면 진로전환 상황에서 동기화 된 개인은 실패를 두려워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적응을 위한 행동에 참여한다는 특성을 가진다고 하였다(Hall & Chandler, 2004). Morrison과 Hall(2002)은 미성숙한 진로결정자는 상대적으로 동기가 부족하고 자신에 대한 정보와 직업에 대한 정보 및 진로결정에 대한 정보가 부족하며, 모순된 정보로 인한 갈등이 높으며, 진로적용 면에서도 어려움을 겪고 있음이 보고되었다. 신윤정(2013)은 진로소명과 진로적응력의 관계에서 내재적 동기가 유의한 매개변인임을 확인하였고, 이는 진로적응력은 외부의 요인보다는 자신의 흥미와 만족을 기반으로 할 때 보다 높다는 것을 의미한다고 하였다. 진로결정 자율성은 진로결정 자기효능감, 진로적응력과 유의미한 정적 상관관계가 나타났는데, 이는 진로결정이 내재적 동기에 기반 할수록 진로 선택에 대한 진로환경에 대처할 수 있는 적응력이 높고 자기 확신이 높다는 것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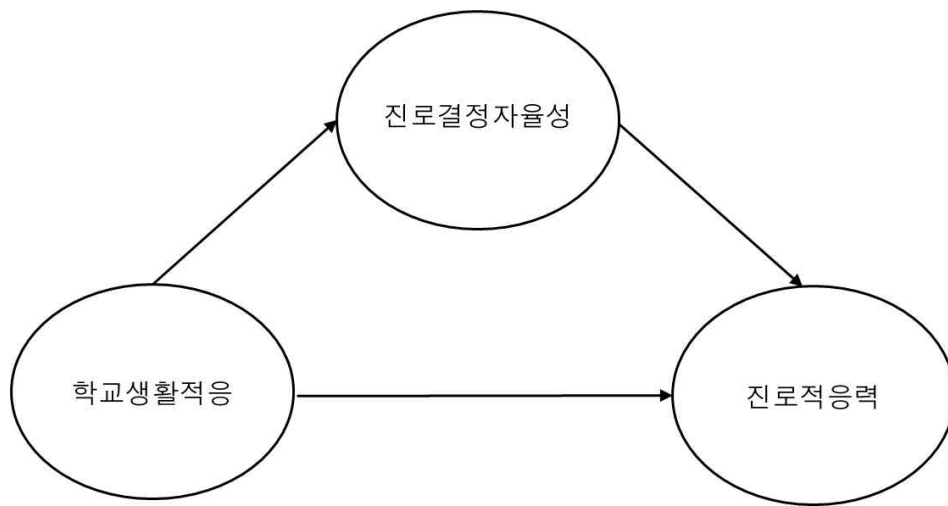
을 나타낸다(성소연, 배성아, 2015). 또한 진로결정 자율성이 높을 때 진로준비행동을 조금 더 적극적으로 수행하며 진로결정 자율성의 하위요인 중 내적동기의 수준이 높을수록 진로 관련 행동을 많이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송현아, 유순화, 윤경미, 2010).

진로에 대한 이해는 학생의 측면에서 그들이 인지하는 학교에 대한 생각과 개인적인 성장의 관점이 필요하다. 따라서 진로 관련 변인이 개인의 환경적응과 내적 성장과 연관 지어 파악될 때, 보다 더 깊은 수준에서 학생들의 진로 탐색과 개발에 도움이 될 것이며 이것은 진로교육 수행에 긍정적 작용을 하게 될 것이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학업과 진로발달이 동시에 요구되는 고등학생을 대상으로 학교생활적응, 진로결정 자율성, 진로적응력 정도와 관계를 파악하고, 학교생활적응과 진로적응력의 관계에서 진로결정 자율성이 매개변인으로서의 역할을 하는지에 대해서 알아보고자 한다. 고등학생의 진로적응력에 미치는 영향력과 관련성을 파악한 본 연구는 학생들에게 진로적응력과 진로결정 자율성 교육 프로그램 개발과 진행에 있어 의미 있는 정보를 제공할 것으로 기대한다.

2. 연구문제

<연구문제 1> 학교생활적응, 진로결정 자율성, 진로적응력의 관계는 어떠한가?

<연구문제 2> 학교생활적응과 진로적응력의 관계에서 진로결정 자율성은 매개 역할을 하는가?



[그림 1] 진로결정 자율성의 매개효과 연구모형

3. 용어의 정의

1) 학교생활적응

학교생활적응이란 학교라는 환경 속에서 개인의 욕구를 충족시키기 위해 환경을 변화시키면서 학교환경의 요구에 따라 자신을 변화시킴으로써 학교 환경과 개인 사이에 조화와 균형을 이루려는 적극적인 상호작용 과정을 말한다(Danielsen, 2009). 본 연구에서는 학교생활적응은 민병수(1991)의 분류에 기초하여 담임교사에 대한 적응, 학교친구에 대한 적응, 학습에 대한 적응, 학교규칙에 대한 적응, 학교행사에 대한 적응 5가지 하위 영역을 포함하였다.

2) 진로결정 자율성

진로결정 자율성은 진로를 준비하거나 결정하는 과정에서 개인이 느끼는 자율성의 정도이며, 이는 자율성의 수준에 따라 내재적 동기, 확인된 조절, 부과된 조절, 외재적 조절의 4가지 유형의 동기를 통해 조작적으로 정의한다(Guay, 2005).

3) 진로적응력

진로적응력은 발달과정에서 진로과업, 진로전환, 직업 관련 외상(trauma)에 의해 나타나는 불분명하고 익숙지 않은 복잡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심리사회적 자원 혹은 자기조절 강점(strengths)으로 정의된다(Savickas & Porfeli, 2012). 본 연구에서는 Savickas와 Porfeli의 개념 정의를 토대로 진로적응력을 자신의 진로 발달 과정에서 예측가능하거나 예측 불가능한 도전에 대처할 수 있게 하는 진로 관심, 진로통제, 진로호기심, 진로자신감으로 구성된 심리사회적 자원으로 정의한다.

II. 이론적 배경

1. 학교생활적응

학교는 청소년이 성장하면서 발달이 이루어지는 생활공간이며 학교생활 그 자체가 청소년기의 발달과업 중 하나에 포함되며(Rutter, 1985), 청소년들이 학교생활을 통해 지식을 습득하게 하고 그들이 속해 있는 사회의 가치관을 전달해 주며, 올바른 인간관계를 형성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해 준다. 또한 학교생활에서 만나는 롤모델인 교사와 또래관계를 형성하는 교우들은 청소년들이 단체생활의 규칙과 협동심을 배워 학교에 적응하도록 돕는다(이화경, 2007).

학교는 청소년들이 하루 중 가장 긴 시간을 보내며 지식과 기술을 습득할 뿐 아니라 사회적 관계를 훈련하고 다양한 규범과 규칙에 따라 생활하는 방식을 습득하고 경험한다. 학교생활을 통해 정체성을 형성하고, 대인관계를 배우고 익히며, 사회 적응 능력을 기른다. 청소년들에게는 학교가 주요 생활공간으로서 가정 못지않게 중요한 의미를 지닌다는 점에서 학교적응 여부는 청소년의 발달에서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한다(정명숙, 2015).

또한 급속한 신체적 변화와 인지적 발달을 경험하면서 자신의 자아정체성을 찾아가는 시기가 청소년기이다. 이를 통해 장래 독립된 성인으로서 살아가는데 필요한 지식과 기술을 습득해야 하는 발달과업을 지닌다. 이러한 청소년들의 발달과업은 주로 학교라는 조직에서 이루어진다. 학교생활을 통해 청소년은 인간으로서 세상을 살아가는데 필요한 것을 배우고 익히며, 사회적 환경에 올바르게 적응할 수 있는 역량을 키우게 된다. 따라서 청소년기의 학생들이 자신의 시간 대부분을 보내고 있는 학교생활은 청소년기의 성장과 발달은 물론 장래 성인으로서의 생활에 중요한 영향을 미친다(정현태, 2017).

특히 사회 환경의 변화 속에서 올바르게 대처할 수 있는 힘을 길러 나가는데 중요한 역할을 의도적으로 행하는 기관이 학교라는 점에서 청소년들이 학교생활에 잘 적응하느냐, 못하느냐의 문제는 청소년들이 성장하여 사회의 구성원으로서

제대로 살아갈 수 있는지의 여부를 결정하는 중요한 기준이 된다(김용수, 주석진, 2010).

적응(Adjustment)이란 개념은 1850년대 Darwin의 생물학 이론의 기초가 된 순응(adaption)개념을 심리학자들이 ‘적응’으로 개정하여 사용한 것으로(이윤호, 2009), 일반적으로 사회생활에서 느끼는 스트레스에 대처하는 것 외에도 발달과정에서 환경에 순응하거나 환경을 변화시키는 것이라 할 수 있다. 즉, 적응이란 인간이 환경에 적절하게 조화되고, 자신의 욕구를 환경 속에서 충족시켜 나가며, 나아가 적극적으로 자신에 맞게 환경을 만들어 가는 것이라고 볼 수 있다(김지현, 2014). Hinshaw(1962)는 적응이란 개인적 심리적 요인과 사회적 환경적 요인의 두 가지 요인을 갖고 있다고 하였다. 이는 개인의 다양한 욕구를 사회가 적당히 받아들이는 동시에 사회로부터의 요구를 개인이 무리 없이 잘 받아 들여서 개인과 사회 사이에 균형이 잘 잡히고 조화로운 안정적인 관계를 유지하는 것을 의미한다.

학교생활적응에 대해서는 다양하게 정의가 되고 있다. 먼저, 사전적 의미를 살펴보면 학교적응은 학생들이 학교의 총체적 영향 즉 학생, 교사, 학급생활 등의 관계 속에서 자신의 욕구를 합리적으로 해결하여 만족감을 느끼고 조화로운 관계를 유지하여 교사 및 학생들과의 관계가 만족스러운 상태로 학교생활에 적응하는 것이라고 설명하며, 더 나아가 학교생활에서의 경험을 통한 사회화 과정으로 규정짓고 있다(교육학대사전, 1992). Spencer(1999)는 학교생활적응을 학생의 특성, 학습 환경의 다차원적 성격 및 요구 사이에서 교육적 적합성을 최대화시키는 학교순응의 정도로 규정하였고, 문은식(2002)은 학교생활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학업적, 사회적, 정의적, 적응 측면에서 욕구를 합리적으로 만족시키기 위해 물리적이고 심리적인 학교환경을 따르거나 그 환경을 변화시키고 조작하는 외현적, 내현적 행동이라고 정의하였다. 장영애와 박정희(2008)는 학교생활적응을 학생들이 학교에 대해 긍정적인 태도와 관심으로 학교환경과 개인 간의 균형유지를 위해 적극적으로 행동함으로써 만족스런 학교생활을 가능하게 하는 것으로 정의했다. 종합해 보면, 학교생활적응은 학교생활 과정에서 학교생활, 친구관계, 학교수업, 교사와의 관계, 교육적 여건인 학교환경 등을 학생 자신이 수용하고 자신의 요구에 적절하게 변화시키는 것을 의미한다(정인순, 안귀여루, 2018). 학

학교생활적응의 개념의 중요성이 부각되는 이유는 원활한 학교생활적응의 긍정적인 영향이 학교 안으로만 한정되지 않고 전인적 삶에 주는 영향력이 지대하기 때문이다(김영봉, 2013). 특히 최근에는 2011년 학생인권조례 제정과 2012년 초·중등교육법령 개정을 통해 학교에서의 학생의 기본적 인권이 강조되기 시작하면서 학교 규칙의 다양한 변화가 예상되고 있으며(백성열, 2018), 또한 대입 학생부 전형과 관련하여 중요성이 강조되는 학교 행사 요인은 학생들의 학교생활적응에 큰 영향을 미치게 될 것이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학교생활적응 요인을 담임교사관계, 교우관계, 학습활동, 학교규칙, 학교행사의 다섯 가지 영역으로 나눈 민병수(1991)의 연구를 토대로 살펴보도록 하겠다.

2. 진로결정 자율성

진로결정 자율성(Career Decision-Making Autonomy)은 진로를 결정하거나 준비하는 과정에서 개인이 스스로 느끼는 자율성의 정도를 의미한다(Guay, 2005). 진로결정 자율성은 Deci와 Ryan(1985)의 자기결정성 이론(self-determination theory)을 토대로 하여 진로결정의 동기적인 과정의 정도와 질적인 수준을 평가할 수 있는 개념이라고 할 수 있다(Guay, 2005; 최윤정, 구본정, 2010).

자기결정성 이론(Self-Determination Theory)은 동기와 행동에 관한 이론으로 개인이 지각하는 동기의 자율성 수준에 따른 개인의 인지적, 사회적 발달의 차이에 초점을 둔다(Ryan & Deci, 2000). Ryan과 Deci(1985)는 자기결정성 이론을 제안하고, 내적 동기와 외적 동기를 구분하는 이분법적이며 상호 독립적인 관점에 대한 문제를 제기하고 외적 동기를 내재화 수준에 따라 외적 조절(external regulation), 부과된 조절(introjected regulation), 확인된 조절(identified regulation)로 분류하여 연속선상에서 동기 유형을 개념화하였다. 즉, 내재적 동기뿐만 아니라 외재적 동기에도 자율성이 포함될 수 있으며, 자율성의 포함 정도에 따라 외재적 동기들이 연속선상에 위계적으로 위치한다고 본다(김아영, 오순애, 2001). 외적 조절이란 개인에게 내재화가 전혀 안된 동기로서 행동을 하는 이

유가 보상, 타인으로부터의 인정, 칭찬을 받고자 하는 동기이다. 부과된 조절은 목표 달성에 실패할 때 경험하게 될지 모르는 부적 감정이 행동을 추구하는 이유인 경우이다. 이는 어느 정도 개인의 가치에 내재화되었지만 자신이 주체가 되어 받아들이지 못하고 남을 의식한 동기이다. 확인된 조절이란 개인적으로 그 행동이 자신에게 중요하다고 가치부여를 한 경우이며, 이는 상당히 내재화된 동기로서 자신이 주체가 되어 행동하는 동기이다. 마지막으로, 내적 동기는 개인에게 완전히 내재화된 동기로서 행동 자체에서 느껴지는 즐거움, 흥미로 인해 행동하는 가장 자율성이 높은 동기이다.

그러나 자기결정성 이론에 따르면 내적 동기만이 자율적인 동기는 아니다. 실제로 개인의 행동이 전적으로 내재적으로 동기화되어 있는 경우는 드물다. 외적 요인이 개입한 동기일지라도 자기결정성을 가질 수 있으며, 확인된 조절의 경우 외적 동기에 속하지만 내적 동기와 함께 자율성 수준이 높다. 반대로 외적 조절과 부과된 조절을 이유로 행동하는 경우는 자율성이 충족되지 않는다(Ryan & Deci, 2002).

Guay(2001)는 자기결정성 이론을 근거로 자율성 수준에 따른 4가지 동기유형인 내재적 동기(intrinsic motivation), 확인된 조절(identified regulation), 부과된 조절(introjected regulation), 외재적 조절(external regulation)로 구분하였다. Guay(2003)의 정의에 따르면 내재적 동기나 확인된 조절과 같은 자율적 동기에 의하여 진로를 결정하기 위한 행동을 하는 사람은 외재적 동기와 같은 부과된 조절에 의하여 행동하는 사람에 비해 진로결정 자율성의 수준이 높다고 할 수 있다. 다시 말해 진로를 결정하기 위한 행동의 목적이 개인의 만족이나 즐거움이라면, 이는 가장 높은 수준의 진로결정 자율성을 지각하는 것이다. 또한 학위가 반드시 필요하다고 생각하지는 않지만 원하는 직업을 얻기 위하여 대학원에 진학하는 경우와 같이 개인이 판단하였을 때 중요하다고 생각하여 활동에 참여하는 확인된 조절의 경우에도 진로결정 자율성을 높게 지각한다. 그러나 처벌을 피하기 위해서 공부를 하거나(외재적 조절), 죄책감이나 수치심을 느끼지 않기 위해서(부과된 조절) 행동을 한다면 진로결정 자율성은 감소되고, 어려움을 경험하게 된다(Deci, 1975; Lepper, Greene, & Nisbett, 1973; 박소영, 2008에서 재인용).

3. 진로적응력

빠르게 변하는 직업 환경 속에서 새로운 진로환경에 적응할 수 있는 진로교육이 요구되고 있으며, 이러한 시대적 요구에 부응하는 진로발달 개념이 바로 급변하는 진로환경의 요구에 유연하고 적절하게 대처할 수 있는 진로적응력이라고 할 수 있다(장계영, 김봉환, 2011).

Super와 Knasel(1981)는 Super의 진로발달 이론의 핵심인 진로성숙의 개념에서 성숙의 개념을 제거하고 미래 계획에 대한 언급을 추가하면서 처음으로 ‘진로적응력’이라는 용어를 제시했으며, 진로적응력을 변화하는 일과 일하는 조건에 대처하기 위한 준비도로 개념을 정의하였다. 양남희와 홍은실(2011)은 진로적응력과 진로성숙도가 직업결정을 하기 위해 일과 직업세계를 이해하고, 진로계획과 진로선택을 통합하고 준비하는 과정이라는 점에서 공통점을 가지고 있다고 하였다. 진로성숙도는 진로를 연속적인 발달개념으로 보되 부분적으로는 각 발달단계에서 수행해야 할 발달과업의 수행정도를 동일한 연령집단과 비교하여 개인이 속하는 위치로 보는 것이다(장석민, 임두순, 송병국, 1991). 그러나 진로적응력은 성숙의 개념을 제거하고 재탐색과 재확립을 강조한 것으로 변화하는 환경에 순응하고 적응함으로써 그 환경에서 생존할 수 있는 태도와 능력의 개인차에 관심을 기울인다는 점에서 차이가 있다(조은정, 이해경, 2014). Savickas는 Super가 제안한 진로성숙의 개념은 현재의 변화무쌍한 고용환경에서 적용하기에는 한계가 있음을 지적하고 성인뿐만 아니라 청소년의 진로발달의 핵심으로 진로적응력을 제안하였다. Savickas는 직업환경의 급속한 변화를 고려할 때, 진로적응력이 발달적 관점에서 보다 중요한 개념이므로 Super의 진로성숙개념을 대체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결국 Savickas의 진로적응력 개념은 Super가 제안한 진로적응력 정의인 직업환경에 대처하는 준비도(readiness)에 개인적 자원이란 아이디어를 더하여 체계화되었다고 할 수 있다(윤석은, 2017).

진로적응력은 아직 발생하지 않은 미래 상황에 대비하여 현재 상황에서 긍정적이고 적극적으로 대처하는 능력이나 태도이며, 현재 직면한 직업 발달과업, 직업전환 그리고 개인적 외상에 대처하는 자원과 준비도를 포함하는 사회심리적

변인이다(Savickas, 1997). Savickas(2005)는 진로적응력과 함께 Super(1990)의 생애주기, Holland(1997)의 직업적 성격 이 3가지 이론을 결합한 구성주의 진로 발달이론을 생애주기에 따른 진로행동을 개념화한 모델을 제시하였다. 그는 진로 발달의 주요개념을 재개념화하면서 진로적응력을 중심으로 하는 진로구성이론(Career Construction Theory: CCT)을 제시하였다. CCT는 선택된 직업 자체의 결과가 아닌, 환경에 지속적으로 적응해 가는 과정에 주요관심을 둔다. CCT에서는 전통적인 진로발달이론의 객관적, 공식적, 법칙적 진로발달 관점을 보완하고 자 주관적, 개인적, 개성 기반의 관점을 통한다. 그리고 개인이 처한 상황과 능력에 따라 고유의 진로를 개발시켜 나가는 과정을 강조하는데, 환경은 지속적으로 변화기 때문에 개인과 환경의 적합성은 결코 완벽하게 일치 될 수 없으며, 진로적응력을 통해 자아개념을 확대해 가는 과정이 중요하다고 보았다(노윤신, 2016). 이와 관련하여 청소년의 진로개입은 주로 진로결정과 준비행동을 향상시키기 위한 진로성숙 차원에 머물러 있으나 최근의 급변하는 직업 환경에서는 다가올 불확실한 환경에 대해 적응할 수 있는 진로지도가 필요하다(이순희, 손은령, 2012).

Hirschi(2009)는 청소년 진로준비와 발달의 중심은 진로적응력이라고 주장하며 긍정적 정서기질, 목표결정성, 능력신념, 사회적 맥락신념을 긍정적 평가 변인으로 제시했다. 또한 긍정적 청소년 개발과 진로적응력개발의 정적인 관계를 밝히고 성공적 진로전환 뿐만 아니라 웰빙과 직접적인 관련이 있음을 강조했다. 따라서 진로적응력은 청년기의 긍정적 발달과 진로준비를 촉진시키고 사회진입과정에서 고용가능성을 높일 수 있는 중요한 의미를 가진 변인으로 작용할 수 있다.

진로구성주의에서는 진로발달을 개개인마다 다르며 반드시 일련의 순서에 따라 이루어지지 않는 하나의 과정으로 보았다(Sharf, 2016). 진로구성주의의 진로적응모형에서는 적응준비(adaptivity), 적응자원(adaptability resource), 적응반응(adapting response), 적응결과(adaptation results)는 서로 구분이 되는 개념으로 제시되고 있다(Savickas & Porfeli, 2012). 진로적응력은 개인과 환경의 상호작용에 의해 변화가능하고 개발될 수 있는 속성을 지녔으며 비교적 안정적이고 지속적인 속성을 가지며 개인의 특성과 관련된 적응성과는 구분이 된다. 하지만 국내 진로적응력에 대한 연구에서 career adaptability는 대부분 진로적응성으로 표현하고 있지만 이들 연구에서 제시된 career adaptability는 진로장면에서의 개인의

적응능력, 대처능력, 준비성, 태도 등으로 단순한 성향이 아닌 능력과 태도 측면을 모두 포함하고 있기 때문에 이는 진로적응력이라고 할 수 있다(노윤신, 2016). 진로적응력 뿐만 아니라, 진로성숙도, 진로탄력성도 진로적응력과 유사한 개념으로 볼 수 있다. 진로적응력과 진로탄력성은 스트레스 상황이나 좋지 않은 환경을 효과적으로 극복했다는 긍정적인 이미지가 내포되어 있고, 진로탄력성은 이미 닦쳐와서 극복해낸 과거 어려운 상황에 대한 회복력을 나타내는 성질로 과거지향적인 반면 진로 적응성은 아직 오지 않은 환경적 변화, 불확실한 미래 상황에 대한 태도로 미래지향적인 관점이다(오종철, 2017).

Savickas(2005)는 진로적응력이 개인의 직업적 행동을 조절하는 자기조절전략으로 기능함을 이야기하며, 구체적인 조절전략을 진로관심(concern), 진로통제(control), 진로호기심(curiosity), 진로자신감(confidence)으로 구분하였다. 진로관심은 직업인으로서 자기 미래에 대한 관심을 가지는 것으로 미래의 방향성, 계획성과 낙관적인 태도에 의해 촉진된다. 진로통제는 자신의 직업적 미래에 대한 통제력을 증진시키는 것으로 개인이 자신의 진로를 만들어 가는 과정에서 책임감을 갖고 주도적이고 자율적으로 의사결정을 하게 한다. 진로호기심을 자신과 직업세계 사이의 적합성을 체계적으로 탐색하려는 탐구성으로 자신과 상황을 맞춰가는 선택에서 현실성과 객관성을 갖게 된다. 진로자신감은 도전하고 장애를 극복함에 있어서 성공기대를 나타낸다. 이는 복잡한 문제를 해결하고 실행에 필요한 자기효능감, 자기수용, 자기가치감을 향상시킨다.

본 연구에서는 Savickas(2005)의 진로적응력의 구성요소로 제안한 관심, 통제, 호기심, 자신감으로 하위요인으로 정하였고, 진로적응력은 개인이 진로방향에 적극적으로 대처 할 수 있는 능력으로, 현재와 다가올 미래의 직업 발달과업, 직업적 전환, 심리적 외상 등에 대응 할 수 있는 개인의 능력으로 정의하였다. 진로적응력을 가진 사람은 자신의 미래에 관심과 호기심을 갖고, 자신의 능력을 믿고, 도전적인 과제나 문제 상황에 자신감 있게 마주하여 성공할 것이라는 기대감을 갖는 사람이라 할 수 있다(허강석, 2017).

4. 선행연구 고찰

1) 학교생활적응과 진로결정 자율성의 관계

학교생활적응이 진로결정 자율성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선행 연구는 주로 학교생활적응의 하위 요인을 중심으로 이루어졌다. 이범수(2015)는 인문계 고등학생의 문화적 성향과 진로결정 자율성, 진로준비행동과의 관계 연구를 통해 인문계 고등학생의 개인주의, 집단주의 성향이 진로결정 자율성의 하부요인을 매개로 진로준비행동에 영향을 미치는지 알아보았고, 강혜정(2017)의 고등학생의 학업 자율성과 진로결정 자율성에 따른 잠재집단 유형 분석에 관한 연구, 곽현(2017)의 대학생의 진로신념과 진로결정 자율성, 계획된 우연기술 및 진로결정수준의 구조적 관계에 관한 연구, 장은영(2012)의 대학생의 진로결정 자율성, 자아분화, 자기주도 학습능력 및 진로탐색행동 간의 구조관계분석에 관한 연구 등이 이루어졌다. 대학생을 대상으로 한 김종길(2017)의 연구에서는 학교생활적응과 진로결정 자율성의 하위변인과의 정적상관 관계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진로결정 자율성과 학교생활적응에 관한 연구를 살펴보면, 자기결정성 이론에서는 기본심리욕구의 만족을 통해 자율성이 높아지면 심리적 안녕감이 촉진된다고 하였다(Ryan & Deci, 2002). 자기결정성 동기와 심리적 안녕감의 관계를 살펴보면 자율성은 자아실현, 활력, 자존감 등과는 정적 상관, 근심과 우울 등과는 부적 상관이 나타났다(Sheldon & Kasser, 1995; Vansteenkiste et al., 2005). 또한 김태은과 현주(2007) 박병기 등(2005), 심우엽(2001), 이은주(2001), 임지현과 류지현(2007)은 한국 학생들을 대상으로 한 연구에서 확인된 조절과 내재동기가 학업성취 수준과도 직접적인 관련이 있는 것으로 나타남을 보였다.

2) 학교생활적응과 진로적응력의 관계

학교생활적응과 진로적응력과의 연구를 살펴보면, 교사와의 관계가 원만할수록 학생의 학교생활적응과 진로의식이 높게 나타나며 학교생활적응과 진로의식 간에 높은 상관관계를 보였다(Park, 1999). 그리고 학교생활적응과 진로결정 수준은 서로 긍정적 상관관계가 있음이 밝혀졌으며(Mun, 2005), 남녀 청소년 모두에서 학교생활적응이 진로적응력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Cho, Choi & Um, 2006). 중학생의 자기효능감, 희망, 진로의식성숙과 학교적응과의 관계를 알아본 김초선(2008)은 각각의 독립변수와 학교적응의 상관관계를 분석하여 세 변인이 모두 학교적응을 유의하게 설명한다는 결과를 제시하였다. 최보람(2008)의 연구에서는 진로태도성숙은 학교생활적응의 하위영역 중 학교환경적응을 제외한 학교규칙적응, 학교친구적응, 학교교사적응, 학교수업적응 및 학업성취와 정적 상관관계가 있는 것으로 나타나 진로태도성숙도가 높을수록 학교생활적응과 학업성취도도 높은 결과가 나왔다.

3) 진로결정 자율성과 진로적응력의 관계

인간은 자기 자신이 결정하기를 원하는 타고난 심리적 욕구를 가졌기 때문에 자율적 동기에 의해 행동을 수정할 때 보다 적극적으로 수행을 하고 행동을 지속할 수 있다(Deci & Ryan, 1985). 진로적응력에 영향을 미치는 주요 변인으로 개인이 진로를 결정하고 준비 하는 과정에서 지각하는 자율성의 수준을 의미하는 진로결정 자율성(Career Decision-Making Autonomy)을 들 수 있다. 자율성은 내재적 동기의 중요한 요인이며, 내재적 동기는 진로적응력에 긍정적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Deci & Ryan, 1985; 2000).

이예진(2010)은 동기체계이론(Ford,1992)에 근거해 차별적 특성을 가지는 군집 유형(긍정 확산형, 외적 조절형, 내적 조절형, 무기력형, 정서 불안형)을 확인하였고, 각 군집별로 진로적응력에 있어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군집 유형 중

긍정 확신형이 진로적응력이 가장 높았고, 정서 불안형이 가장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를 통해 동기 수준이 진로적응력의 차이를 가져오는 주요 변인이라는 점을 밝혔다. 진로결정관련 내적 동기가 다양한 진로상황에서 높은 수준의 진로 적응성을 발휘하도록 도와준다는 연구결과도 보고되었는데, 내적동기가 높은 근로자들이 근로환경에서 과업 수행 시 더 나은 문제해결 능력과 창의성을 보였음을 발견했다(Miller, 2010). Babakus와 Yavas 및 Karatepe(2008)는 높은 수준의 내적동기를 가진 근로자들이 길고 불규칙한 근무시간 등 여러 스트레스 요인들에 더 효율적으로 대처하고 이직 의도가 낮음을 확인하였고, 대학 진학 예정인 프랑스 고등학생들을 대상으로 연구한 Pouyand 등(2012)은 진로결정과 관련된 내재적 동기는 진로적응력과 높은 정적인 상관관계가 있다고 밝혔다.

Ⅲ. 연구방법

1. 연구대상

본 연구는 제주시 소재 고등학교 5곳에 재학 중인 1, 2학년 남녀학생 총 800명을 표본으로 선정하였다. 자료 수집은 2018년 3월 21일부터 3월 29일까지 각 반 담임교사에 의해 실시되었다. 총 800부 중 789부가 회수되었고(회수율 98.6%), 이 중 척도 1개 이상을 응답하지 않거나 동일한 반응 및 이상치 응답 등의 불성실한 18부를 제외한 771명의 자료를 최종 분석에서 사용하였다.

2. 측정도구

1) 학교생활적응

본 연구에서는 학교생활 대한 적응 정도를 알아보기 위하여 문선모(1975)의 학교생활적응 척도와 이상필(1990)의 학교생활적응에 관한 질문지를 참고로 하여 민병수(1991)가 제작한 학교생활적응 척도를 사용하였다. 이 척도는 담임교사에 대한 적응, 학교친구에 대한 적응, 학습에 대한 적응, 학교규칙에 대한 적응, 학교행사에 대한 적응의 5가지 하위 영역 총 25개 문항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각 문항은 Likert 5점 척도를 사용하였다. 한규미(2012)가 학교생활적응척도를 사용하여 부산소재 고등학생의 대상으로 한 연구에서 신뢰도 계수 Chronbach's α 는 .86이었고, 권미정(2013) 연구에서의 신뢰도 계수 Chronbach's α 는 .76로 나타났다. 본 연구에서 신뢰도 계수 Chronbach's α 는 .826로 나타났다. 학교생활적응 척도의 문항구성 및 신뢰도는 다음 <표 1>과 같다.

<표 1> 학교생활적응 척도의 구성

(N=771)

하위요인	문항번호	문항수	Chronbach's α
담임교사 적응	1, 2, 3, 4, 5,	5	.822
교우관계 적응	6, 7, 8, 9, 10	5	.733
학습활동 적응	11, 12, 13, 14, 15	5	.839
학교규칙 적응	16, 17, 18, 19, 20	5	.782
학교행사 적응	21, 22, 23, 24, 25	5	.732
전체		25	.826

2) 진로결정 자율성

대학생의 진로결정 자율성을 측정하기 위해 Guay(2001)가 개발하여 한주옥(2004)이 번안한 진로결정 자율성 척도(CDMAS: Career Decision-Making Autonomy Scale)를 원문에 맞게 수정한 김태환(2013)의 척도를 사용하였다. 진로결정 자율성 척도의 세부 내용은 8개의 행동에 대한 4개의 이유(내적동기, 확인된 조절, 부과된 조절, 외재적 조절)를 묻는 32개의 문항으로 구성되어 있다. 내적 동기는 자기결정성과 자율성이 가장 높은 동기로 과제 자체에 대한 즐거움과 만족으로 인한 동기이며, 동일시된 조절은 개인이 중요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실행하는 행동과 관련되며 실제 즐거움을 주지는 못하지만 자신이 원하는 활동을 하기 위해 일어나는 동기이다. 부과된 조절은 타인에 의해 내재된 행동과 관련되며 순수한 자기결정에 기초한 행동이라기보다는 죄책감이나 불안을 피하기 위해서 의도된 행동동기이며, 외재적 조절은 자율성 수준이 가장 낮은 것으로 보상이나 제한과 같은 외적인 수단에 의해서 행동이 조절되는 것을 의미한다.

Guay(2001)와 한주옥(2004)의 연구에서는 7점 척도였으나 응답자들이 5점과 7점을 혼동하여 불성실 응답을 하는 경우가 있어, 5점 Likert 척도로 변경하여 사용하였다. 각 요인은 1점에서 5점으로 평가되며, 요인별 점수의 범위는 8~40점이다. 이 척도에서 자율성 지수는 (내적동기+동일시된 조절)-(주입된 조절+외적조절)의 방식으로 산출되며 그 결과 산출된 점수가 높을수록 진로결정에 대한 자

율성 수준이 높음을 의미한다. 자율성 지수가 양의 점수이면 내적 동기와 동일시된 조절에 의한 행동으로 간주하고 자율성 지수가 음의 점수를 보이면 주입된 조절과 외적조절에 의한 행동으로 해석한다(이기학, 2007; 한주옥, 2004). 한주옥(2004)의 연구에서 이 측정도구의 신뢰도 계수 Chronbach's α 는 .91~.95로 보고되었으며, 김태환(2013)의 연구에서는 예비조사에서 .866, 본 조사에서는 .892로 보고되었다. 본 연구에서 진로결정 자율성 척도의 하위 요인구성과 신뢰도는 <표 2>에 제시하였다.

<표 2> 진로결정 자율성 척도의 구성 (N=771)

하위요인	문항번호	문항수	Chronbach's α
내적 동기	1, 5, 9, 13, 17, 21, 25, 29	8	.949
확인된 조절	2, 6, 10, 14, 18, 22, 26, 30	8	.945
부과된 조절	3, 7, 11, 15, 19, 23, 27, 31	8	.955
외재적 조절	4, 8, 12, 16, 20, 24, 28, 32	8	.971
전체		32	.931

이 도구의 특이한 점은 진로결정 자율성 지수를 산출하는 방법에 있다. Guay(2005)는 먼저 각 행위별로 4개의 동기유형을 (내적동기+확인된 조절)-(부과된 조절+외재적 조절)과 같은 공식에 입각하여 총 8개의 자율성 지수를 산출하였다. 이후 타당도와 신뢰도가 더 높은 자율성지수를 만들기 위해 8개의 지수를 순서대로 2개씩 묶어 평균을 구하여 4개의 지수를 산출하였다(Marsh & Yeung, 1997). 이렇게 산출된 지수의 합이 높으면 개인은 높은 자율성을 갖고 진로결정을 행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본 연구에서도 이와 같은 절차를 거쳐 진로결정 자율성 지수를 산출하였다.

3) 진로적응력

본 연구에서는 진로적응력을 측정하기 위해 Savickas와 Porfeli(2012)가 개발한 CAAS(Career Adapt-ability Scale)를 Tak(2012)이 번안하고 노윤신(2016)이 수정, 보완한 도구를 사용하였다. CAAS는 2012년 개발된 진로적응력 측정도구로 진로적응력의 4가지 차원인 관심, 통제, 호기심, 자신감의 요인으로 구성되어 있다. 각 요인별로 6문항씩 총 24문항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자신의 진로적응력을 쌓아 가는데 활용되는 강점들을 얼마나 지니고 있는가를 묻는 형태로 되어 있다. 반응양식은 ‘전혀 그렇지 않다(1점)’에서 ‘매우 그렇다(5점)’까지의 5점 Likert 척도로, 점수가 높을수록 진로적응력이 높다는 것을 의미한다. 노윤신(2016)은 24문항 전체의 신뢰도 계수 Chronbach’s α 는 .905로 높은 신뢰도를 나타냈으며, 측정 요인별로는 진로 관심이 .792, 통제가 .808, 호기심이 .738, 자신감이 .841로 양호하게 나타났다. 본 연구에서는 진로적응력 척도 문항구성 및 신뢰도는 <표 3>과 같다. 진로적응력 척도의 전체 신뢰도 계수 Chronbach’s α 는 .946으로 나타났다.

<표 3> 진로적응력 척도의 구성 (N=771)

하위요인	문항번호	문항수	Chronbach’s α
진로관심	1, 2, 3, 4, 5, 6	6	.887
진로통제	7, 8, 9, 10, 11, 12	6	.866
진로호기심	13, 14, 15, 16, 17, 18	6	.877
진로자신감	19, 20, 21, 22, 23, 24	6	.923
	전체	24	.946

3. 자료분석

설문조사를 통해 수집된 자료는 코딩작업과 오류검토를 거친 후, SPSS 18.0을 이용하여 다음과 같은 방법으로 자료 분석을 실시하였다.

첫째, 측정도구의 신뢰성을 측정하기 위해 신뢰도 검사를 실시하여 Cronbach's α 값을 구하였다.

둘째, 응답자의 일반적 특성을 파악하기 위해 빈도분석을 실시하여 확인하였다.

셋째, 학교생활적응, 진로결정 자율성, 진로적응력 수준을 파악하기 위해 기술 통계분석을 실시하였다.

넷째, 인구통계학적 특성에 따른 주요 변수들의 차이를 검증하기 위해 독립표본 t검정을 실시하였다.

다섯째, 학교생활적응, 진로결정 자율성, 진로적응력 사이의 관계를 파악하고자 Pearson의 상관계수를 통한 상관분석을 실시하였다.

여섯째, 학교생활적응과 진로적응력의 관계에서 진로결정 자율성의 매개효과검증을 위하여 Baron과 Kenny(1986)가 제안한 3단계 회귀분석을 실시하고 매개효과와의 유의성을 검증하기 위해 Sobel test를 실시하였다.

IV. 연구결과

1. 조사대상자의 일반적 특성

본 연구에서 조사대상자의 일반적 특성은 성별, 학년, 학교를 포함한다. 이 내용들을 파악하기 위해 빈도분석을 실시하였으며, 결과는 <표 4>와 같다.

성별 구성에 있어서는 남자 387명(50.2%), 여자 384명(49.8%)이다. 학년은 1학년이 290명(37.6%), 2학년은 481명(62.4%)이다. 그 중 일반고에 재학 중인 학생은 581명(75.4%)이며 특성화고에 재학 중인 학생은 190명(24.6%)이다.

<표 4> 조사대상자의 인구통계학적 특성 (N=771)

변수	항목	빈도수(명)	백분율(%)
성별	남성	387	50.2
	여성	384	49.8
	소 계	771	100
학년	1학년	290	37.6
	2학년	481	62.4
	소 계	771	100
학교	일반고	581	75.4
	특성화고	190	24.6
	소 계	771	100

2. 주요 변인들의 기술통계 분석

본 연구의 주요 변인들인 학교생활적응, 진로결정 자율성, 진로적응력 변인에 대한 기술통계를 살펴본 결과는 다음과 같다.

1) 학교생활적응 경향

조사 대상자의 학교생활적응 경향은 <표 5>에 제시하였다. 고등학교 학생들이 학교생활적응에 대한 수준은 3.83으로 나타났고 이는 중간점수(3.00)보다 약간 높은 수준을 보이며, 세부 요인별로는 교우관계적응이 4.12로 가장 높은 수준의 인식수준을 보였다. 다음으로 학교규칙적응 4.10, 담임교사적응 3.98, 학교행사적응 3.66, 학습활동적응 3.28 순으로 나타났다.

<표 5> 학교생활적응의 평균과 표준편차 및 왜도, 첨도 (N=771)

변수	하위 요인	평균	표준편차	왜도	첨도
학교생활적응		3.83	.55	-.14	-.12
	담임교사적응	3.98	.76	-.5	-.36
	교우관계적응	4.12	.58	-.43	-.10
	학습활동적응	3.28	.81	-.12	-.30
	학교규칙적응	4.10	.66	-.59	-.20
	학교행사적응	3.66	.73	-.15	-.16

2) 진로결정 자율성 경향

진로결정 자율성은 내적 동기(8문항), 확인된 조절(8문항), 부과된 조절(8문항), 외재적 조절(8문항)의 4개 세부요인으로 구성되었다. 분석 결과는 <표 6>에 제시되었으며 5점 likert 척도를 기준으로 진로결정 자율성 지수의 평균은 2.74이다. 세부요인별로는 확인된 조절이 4.16으로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내적 동기 3.91, 부과된 조절 2.78, 외재적 동기 2.45 순으로 나타났다. 이는 이범수(2015), 이정숙(2011), 한은혜(2016)의 연구와 유사한 결과지만 578명의 일반계 고등학생을 대상으로 연구한 남관희(2016)의 결과와는 다르다. 남관희(2016)의 연구에서는 부과된 조절 4.81, 외재적 조절 3.95, 확인된 조절 3.13, 내적 동기 2.69 순이며 진로결정 자율성 평균은 -2.95로 본 연구의 결과는 상반된다.

<표 6> 진로결정 자율성의 평균과 표준편차 및 왜도, 첨도 (N=771)

변수	하위 요인	평균	표준편차	왜도	첨도
진로결정 자율성		2.74	2.40	.39	-.53
	내적 동기	3.91	.82	-.56	.19
	확인된 조절	4.16	.76	-.98	1.22
	부과된 조절	2.78	1.08	.10	-.62
	외재적 조절	2.45	1.08	.37	-.54

3) 진로적응력 경향

진로적응력은 진로관심(6문항), 진로통제(6문항), 진로호기심(6문항), 진로자신감(6문항)의 4개 세부요인을 갖는다. 분석 결과는 <표 7>에 제시되었으며 전체적으로 4.07의 높은 수준을 보였다. 세부요인별로는 진로통제 4.19, 진로관심 4.12, 진로호기심 4.00 순으로 나타났으며, 진로자신감은 3.98로 가장 낮았다.

<표 7> 진로적응력의 평균과 표준편차 및 왜도, 첨도

(N=771)

변수	하위 요인	평균	표준편차	왜도	첨도
진로적응력		4.07	.59	-.317	-.063
	진로관심	4.12	.67	-.730	.882
	진로통제	4.19	.64	-.390	-.637
	진로호기심	4.00	.67	-.351	.082
	진로자신감	3.98	.69	-.343	.047

3. 성별, 학년, 학교유형 간 특성의 차이

1) 학교생활적응의 차이

일반적 특성에 따른 총체적 학교생활적응의 차이를 분석한 결과는 <표 8>과 같다. 분석 결과 학년($t=3.11, p=.002$)과 학교($t=5.07, p=.000$)에서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수준에서 차이를 보인 반면 성별에서는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가 없다는 결과를 보였다. 학년에서는 1학년이 3.91($SD=.51$)로 2학년 3.78($SD=.56$)에 비해 높게 나타났고, 재학 중인 학교에 따라서는 일반고 학생이 3.89($SD=.51$), 특성화고 학생의 3.64($SD=.62$)에 비해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를 보였다.

<표 8> 학교생활적응에 대한 독립표본 t 검정 (N=771)

변인	항목	빈도(N)	평균	표준편차	t	유의확률
성별	남성	387	3.80	.56	-1.78	.075
	여성	384	3.86	.54		
학년	1학년	290	3.91	.51	3.11	.002**
	2학년	481	3.78	.56		
학교	일반고	581	3.89	.51	5.07	.000***
	특성화고	190	3.64	.62		

*p<.05, **p<.01, ***p<.001

2) 진로결정 자율성의 차이

조사대상자의 일반적 특성에 따른 진로결정 자율성의 차이를 분석한 결과는 <표 9>와 같다. 분석 결과 성별과 학년, 학교 모두에서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 9> 진로결정 자율성에 대한 독립표본 t 검정 (N=771)

변인	항목	빈도(N)	평균	표준편차	t	유의확률
성별	남성	387	3.31	.59	-.63	.529
	여성	384	3.34	.62		
학년	1학년	290	3.37	.64	1.68	.102
	2학년	481	3.30	.58		
학교	일반고	581	3.34	.58	1.05	.296
	특성화고	190	3.28	.70		

*p<.05, **p<.01, ***p<.001

3) 진로적응력의 차이

조사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에 따른 총체적 진로적응력에 대한 차이 검증의 결과는 <표 10>과 같다. 학교($t=5.45$, $p=.000$)에 따라 일반고에 재학 중인 학생이 4.14점($SD=.57$)으로 특성화고에 재학 중인 학생의 3.87점($SD=.62$)에 비해 높은 결과를 보였다. 반면 성별과 학년에서는 통계적으로 차이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 10> 진로적응력에 대한 독립표본 t 검정 (N=771)

변인	항목	빈도(N)	평균	표준편차	t	유의확률
성별	남성	387	4.09	.57	.790	.430
	여성	384	4.06	.62		
학년	1학년	290	4.08	.62	-.002	.998
	2학년	481	4.08	.58		
학교	일반고	581	4.14	.57	5.45	.000***
	특성화고	190	3.87	.62		

* $p<.05$, ** $p<.01$, *** $p<.001$

4. 주요 변인들의 상관관계

1) 변수들 간의 상관관계 분석

본 연구의 매개효과를 검증하기에 앞서 독립변수들 간의 상관관계를 확인하기 위해 피어슨의 상관계수(Pearson's correlation coefficient)를 실시하였다. 그 결과 학교생활적응, 진로결정 자율성, 진로적응력 변수 모두 정적 상관관계를 보였으며, 구체적인 결과는 <표 11>에 제시하였다.

학교생활적응과 진로적응력의 관계를 살펴보면 전체 학교생활적응과 진로적응력은 .621($P < 0.01$)의 유의한 정적 상관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하위요인을 살펴보면 진로관심(.531), 진로통제(.531), 진로호기심(.544), 진로자신감(.596) 순으로 모두 학교생활적응 전체와 유의미한 정적 상관관계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p < 0.01$). 특히, 진로적응력의 하위 요인인 교우적응(.550)과 학습적응(.543)은 학교생활적응과 높은 상관을 보였다.

진로결정 자율성과 진로적응력의 관계를 살펴보면 진로결정 자율성은 진로적응력과 .417($P < 0.01$) 유의한 정적 상관이 나타났다. 하위요인을 살펴보면 진로통제 .408, 진로관심 .395, 진로자신감 .346, 진로호기심 .334 순으로 유의한 상관성을 나타냈다.

학교생활적응과 진로결정 자율성의 관계를 살펴보면 전체적으로 학교생활적응과 진로적응력은 .374($P < 0.01$)의 유의한 상관이 있음을 보여준다. 하지만 변인 간 상관관계는 다른 변인과의 관계에서보다는 상대적으로 낮은 편으로 나타났다.

<표 11> 학교생활적응, 진로결정 자율성, 진로적응력의 상관관계 (N=771)

구분	학교 적응	담임 적응	교우 적응	학습 적응	규칙 적응	행사 적응	진로결정 자율성	진로 적응력	진로 관심	진로 통제	진로 호기심	진로 자신감
학교적응	1											
담임적응	.746**	1										
교우적응	.793**	.566**	1									
학습적응	.799**	.461**	.533**	1								
규칙적응	.707**	.321**	.457**	.485**	1							
행사적응	.813**	.503**	.580**	.542**	.509**	1						
진로결정 자율성	.374**	.246**	.289**	.312**	.318**	.281**	1					
진로 적응력	.621**	.409**	.550**	.543**	.413**	.488**	.417**	1				
진로관심	.531**	.349**	.472**	.488**	.331**	.411**	.395**	.882**	1			
진로통제	.531**	.380**	.495**	.424**	.351**	.411**	.408**	.866**	.692**	1		
진로 호기심	.544**	.349**	.467**	.460**	.388**	.443**	.334**	.901**	.730**	.694**	1	
진로 자신감	.596**	.375**	.518**	.549**	.393**	.467**	.346**	.900**	.706**	.704**	.773**	1

*p<.05, **p<.01, ***p<.001

5. 학교생활적응과 진로적응력의 관계에서 진로결정 자율성의 매개효과

학교생활적응이 진로적응력에 미치는 영향관계에서 진로결정 자율성의 매개효과를 파악하기 위해 독립변수에는 학교생활적응, 종속변수에는 진로적응력, 매개변수에는 진로결정 자율성을 두었다.

분석방법은 Baron과 Kenny(1986)가 제시하는 방법에 따랐다. Baron과 Kenny(1986)는 매개효과 검증을 위해서 독립변수가 종속변수에 영향을 미쳐야 하고, 독립변수가 매개변수에 영향을 미쳐야 하며, 매개변수가 종속변수에 영향을 미쳐야 하는 것으로 제시하고 있다. 또한 Sobel Test를 이용하여 매개효과의 유의도를 검증하였다. 분석결과는 <표 12>와 같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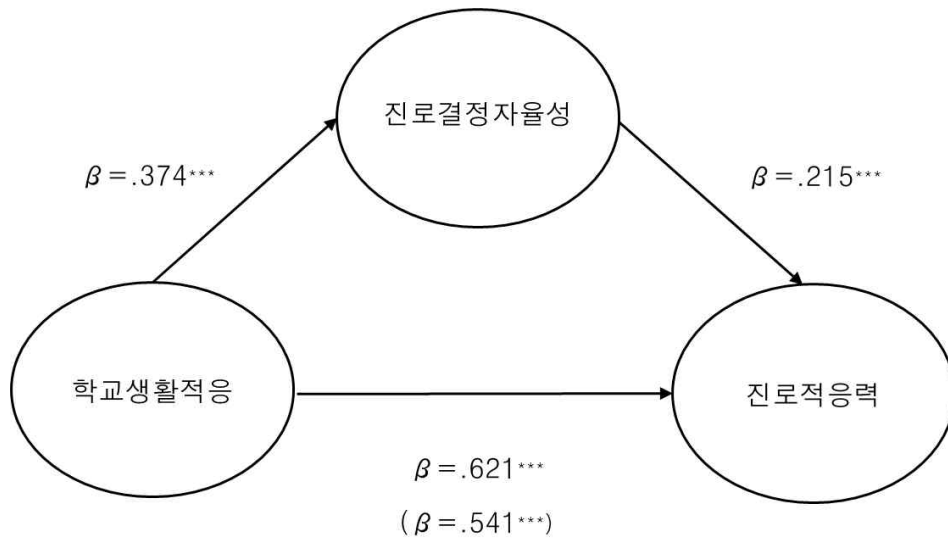
<표 12> 학교생활적응과 진로적응력의 관계에서 진로결정 자율성의 매개효과 (N=771)

단계	독립변인	종속변인	R^2	F	B	SE	β	t
1	학교생활적응	진로결정자율성	.140	125.126	1.640	.147	.374	11.186***
2	학교생활적응	진로적응력	.386	482.916	.675	.031	.621	21.975***
3	학교생활적응 진로결정자율성	진로적응력	.425	284.252	.588 .053	.032 .007	.541 .215	18.335*** 7.277***
Sobel's Test			$B_a = 1.640$		$SE_a = .147$			
Z= 6.265***			$B_b = .053$		$SE_b = .007$			

p<.01, *p<.001

먼저 전반적인 학교생활적응과 진로적응력 간의 관계에서 진로결정 자율성의 매개효과 분석결과를 살펴보면, 1단계 검증에서 독립변수인 학교생활적응은 매개변수인 진로결정 자율성에 유의한 정적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beta = .374$), 2단계 검증에서도 독립변수 학교생활적응은 종속변수인 진로적응력에 유의한 영향을 미쳤다($\beta = .621$). 3단계 검증에서 학교생활적응이 진로적응력에 유의

미한 영향을 미치고 있으나($\beta=.541$), 그 영향력이 감소하였고($\beta=.621 \rightarrow \beta=.541$), 매개변수인 진로결정 자율성은 종속변수인 진로적응력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beta=.215$). 따라서 학교생활적응과 진로적응력 간의 관계에서 진로결정 자율성은 부분매개효과가 있는 것으로 볼 수 있다. 이 과정에서 학교생활적응은 진로적응력을 38.6% 설명하였고, 학교생활적응과 진로결정 자율성을 포함한 모델은 진로적응력을 42.5% 설명하였다. 매개검증의 마지막 단계로, 진로결정 자율성의 매개효과 크기에 대한 유의도를 검증하기 위해 Sobel test를 실시하였다. 그 결과 진로결정 자율성($Z=6.265$, $p<.001$)이 유의한 부분매개변수임이 검증되었다.



[그림 2] 진로결정 자율성의 매개효과 분석

V. 논의

1. 결론 및 논의

일생의 진로를 결정하는 중요한 고등학교 시기의 진로적응력을 학교생활적응과 진로결정 자율성의 측면에서 파악해 보고자 하였다. 고등학생 771명을 분석대상으로 하여 학교생활적응, 진로결정 자율성과 진로적응력의 정도와 관계를 살펴보았으며, 학교생활적응과 진로적응력의 관계에서 진로결정 자율성이 매개변인으로서의 역할을 파악하였다.

본 연구의 연구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고등학생의 진로적응력은 평균 4.07이며, 진로결정 자율성은 2.74로 나타났다. 전반적 학교생활적응은 평균 3.83으로 나타났으며, 학교생활적응의 하위영역별 평균을 살펴보면 교우관계적응 4.12, 학교규칙적응 4.10, 담임교사적응 3.98, 학교행사적응 3.66, 학습활동 3.28 순으로 나타났다. 이는 청소년의 학교생활적응이 중간점수(3.00)보다 약간 높은 수준으로 나타난 김종근(2013), 천수혜(2008), 최아라(2017)의 연구결과와 유사하다. 청소년의 학교생활적응 중 특히 교우관계를 긍정적으로 지각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학교행사나 학습에 대한 적응은 상대적으로 낮은 것으로 나타나 학생들의 재미와 참여 동기를 증진시킬 수 있는 학교 행사 프로그램의 개발 및 적용이 필요하다고 보여지며, 학생들이 교과에 흥미를 가지고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수업 방식의 개선 및 학업에 대한 부담을 덜어 주는 것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진로적응력의 경우에도 전체 평균이 중간보다 다소 높게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특성화 고등학생을 대상으로 한 연구(이호진, 김완일, 2016)에서 진로적응력의 전체 평균이 중간보다 높게 나타난 결과와 유사하다. 이러한 결과로 고등학생들의 진로적응력이 높다고 단정 하기는 어려우나, 급변하는 직업 환경에 비추어 보았을 때 학생들의 진로적응력이 중간보다 높게 나타났다는 점은 고무적이라고 할 수 있다. 다만 국내에서 고등학생들의 진로적응력 수준을 확인한 연구가 거의

이루어지지 않은 상태이므로, 지속적인 연구를 통해 확인될 필요가 있다(안진영, 유순화, 신채영, 임애경, 2017). 한편, 진로적응력 하위변인들 간의 전체 평균에도 간에 큰 차이는 없었으나, 관심이 상대적으로 높았고 자신감이 다소 낮게 나타났다. 이는 고등학생들이 미래의 진로에 대해서 관심은 많이 가지고 있지만, 진로와 관련한 어려움을 극복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확신이 부족하기에 자신감이 다소 낮아진 것으로 풀이할 수 있겠다.

둘째, 성별, 학년, 학교에 따른 주요 변인 간의 차이를 살펴본 결과, 학교생활 적응은 학년, 학교에 유의미한 차이를 보였고, 1학년(3.91)이 2학년(3.89)보다 조금 높게 나타났으며, 일반고 학생(3.89)이 특성화고 학생(3.64)보다 높게 나왔다. 이 결과는 인문계 학생에 비해 실업계 학생이 학업스트레스를 적게 받아 학교생활에 더욱 만족한다는 유을용(2001)과 문상근(2004)의 연구와는 일치하지 않은 것이므로 세밀한 분석을 필요로 한다. 진로결정 자율성은 변인 간의 차이가 유의미하지 않았으며 이는 진로결정 자율성이 성별에 따른 차이가 없다고 보고한 연구(최동민, 2015; 박소영, 정영숙, 2011; 송현아, 유순화, 윤경미, 2010)와 일치한다. 진로적응력은 학교에 따른 차이에서 일반고 학생(4.14)이 특성화고 학생(3.87)보다 높게 나왔고 이는 계열에 따른 진로성숙도와 학교적응에의 선행연구인 박현주(1997), 이선영(2008)의 연구결과와 일치하며 성별, 학년은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없었다.

셋째, 학교생활적응, 진로결정 자율성, 진로적응력의 관계를 살펴본 결과, 학교생활적응, 진로결정 자율성, 진로적응력 모두 정적상관 관계를 보였고, 학교생활적응과 진로적응력의 상관관계가 가장 높았다. 이는 진로성숙도와 학교생활적응 간의 인과관계를 연구한 기존의 연구(김유나, 2009; 정미숙, 2011; 최미경, 2013)와 일치한 결과이다. 본 연구에서도 학교생활적응이 진로적응력을 향상 시킬 수 있는 직접적인 요인임을 확인하였다.

넷째, 학교생활적응과 진로적응력의 관계에서 진로결정 자율성이 매개변인으로서의 역할을 하는지 확인해 본 결과, 진로결정 자율성은 부분매개 변인으로서의 역할을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학교생활적응이 진로결정 자율성에 정적 영향을 미치고, 학교생활적응은 진로결정 자율성을 매개하여 진로적응력에 정적 영향을 미침을 보여준다. 이러한 결과는 학교생활적응에 기반을 둔 개입이 고등학생

의 진로적응력을 개선하는 데 있어서 유용한 개입이 될 수 있음을 시사한다. 더불어 학교생활적응이 진로결정 자율성의 매개를 거쳐 진로적응력을 높이는데 효과를 가져 올 수 있음을 시사한다.

2. 제한점 및 제언

첫째, 본 연구는 제주시에 소재하는 학교 중 일반계 고등학교와 특성화 고등학교를 연구자가 임의로 선택하여 학교와의 협의를 통해 임의표집 하였으므로 표집의 오류가 있을 수 있다. 이는 본 연구의 결과를 전국 단위로 일반화시키기에 어려움이 있음을 나타낸다. 따라서 후속 연구에서는 무작위 추출이나 층화 표집 등에 의한 보다 신뢰성 있는 표집방법으로 연구를 진행하는 것이 필요하겠다.

둘째, 학교생활적응, 진로적응력의 측정도구가 통일되지 못하고, 특히 진로결정 자율성 지수를 산출하는 데 있어서 연구자마다 제시하는 방법이 다른 경우가 있기 때문에 선행연구의 결과를 일반화하는데 무리가 있다. 또한 자료수집에 있어 응답자가 자기보고식으로 응답한 내용을 분석에 사용하여 응답에 대한 객관성의 문제가 있을 수 있다. 따라서 향후 연구에서는 변인 별 객관적이고 통일된 평가 도구의 개발이 필요하고 이를 통해 통합적 연구가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셋째, 본 연구에서는 학교생활적응과 진로결정 자율성이 고등학생의 진로적응력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음을 보여 주었다. 하지만 지금의 고등학교 교육과정 시스템은 학교 환경과 교사 수급 문제로 인해 2015 개정 교육과정이 추구하는 자율성을 보장해 주는 데는 한계가 있다. 따라서 본 연구결과를 바탕으로 학교의 특성과 학교 사정에 맞게 고등학생의 학교생활적응과 진로결정 자율성을 향상시키기 위한 진로교육 및 상담 프로그램의 개발과 활용 및 효과 검증에 대한 연구가 필요할 것이다.

참 고 문 헌

- 강혜정(2016). **고등학생의 학업 자율성과 진로결정 자율성에 따른 잠재집단 유형 분석**. 전북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 김지현(2014). **고등학생이 지각한 부모양육태도, 내현적 자기에, 사회적지지, 학교생활적응 간의 구조관계분석**. 동아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 교육부(2013). **학교 진로교육 컨설팅 매뉴얼**.
- 교육부(2014). **2015 문이과 통합형 교육과정의 총론** 주요사항 발표.
- 교육부(2015). **2015 개정 교육과정 총론 및 각론 확정·발표**. 보도자료.
- 교육학사전편찬위원회(1992). **교육학대사전**. 서울: 교육출판공사.
- 김광수, 장승현, 조병만, 임을미(2001). 청소년 인터넷 중독과 학교생활적응의 관계. **교육논총**, 16, 301-333.
- 김동주(2017). **부모진로행동이 자기주도학습에 미치는 영향: 진로성숙도와 진로적응성의 매개효과**. 건국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김봉환, 정철영, 김병석(2006). **학교진로상담(2판)**. 서울: 학지사.
- 김아영, 오순애(2001). 자기결정성 정도에 따른 동기유형의 분류. **교육심리연구**, 15(4), 97-119.
- 김유나(2009). **청소년의 진로성숙과 학교적응과의 관계**. 가톨릭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김영봉(2014). **다문화가정 부모의 양육태도와 자녀의 학교생활적응력간의 구조적 관계 분석**. 인제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 김영순, 손진희(2012). 특성화고교 학생 진로 관련 연구 동향 분석. **직업능력개발 연구**, 15(1), 51-75.
- 김완주(2018). **자기주도학습능력과 진로준비행동의 관계에서 진로적응성과 진로결정 자율성의 매개효과**. 대구가톨릭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김응수, 주석진(2010). 도시와 농촌지역 청소년의 학교부적응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에 관한 비교연구. **청소년학 연구**, 17(11), 183-203.
- 김종근(2013). **청소년의 자아탄력성과 또래에착이 학교생활 적응에 미치는 영**

- 향. 대신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김종길(2017). **태권도 전공대학생의 학교생활적응과 진로결정 자율성의 관계**. 용인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김태은, 현주(2007). 학교급별 학업능력에 대한 학습효능감, 학습동기화, 성취목표 지향성의 효과. **교육심리 연구**, 21(1), 185-207.
- 김태환(2013). **대학생의 진로선택 몰입과 가족지지, 진로결정 자율성, 진로결정 자기효능감의 인과적 관계**. 서울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남관희(2016). **일반계 고등학생들의 학습몰입과 진로결정 자율성이 진로결정 수준에 미치는 영향**. 부산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노윤신(2016). **대학생의 진로적응력과 주도적 성향, 불확실성 불관용, 진로탐색행동 및 진로의사결정 자기효능감의 구조적 관계**. 서울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 문은식(2002). **청소년의 학교생활 적응행동에 관련되는 사회·심리적 변인들의 구조적 분석**. 충남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 민병수(1991). **학교생활적응과 자아개념이 학교성적에 미치는 영향**. 홍익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박고운, 이기학(2007). 진로결정 자율성 수준과 진로준비행동과의 관계에서 진로 자기효능감의 매개효과 연구. **한국심리학회지: 상담 및 심리치료**, 19(2), 409-422.
- 박래영(2005). 광복 60년 학업중단의 원인, 실태, 정책의 변화양상과 향후과제. **청소년복지연구**, 7(2), 5-21.
- 박병기, 이종욱, 홍승표(2005). 자기결정성 이론이 제안한 학습동기 분류 형태의 재구성. **교육심리연구**, 19(3), 699-717.
- 박소영(2008). **진로결정 자율성이 진로결정과 취업준비행동에 미치는 영향**. 부산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박신영, 이동형(2013). 진로결정수준과 대학생활적응의 관계에서 진로준비행동의 조절효과. **직업교육연구**, 32(1), 23-38.
- 박진양(2012). **경력계획과 진로적응성, 직무만족의 관계에 관한 연구**. 고려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박현주(1997). **자아존중감과 내외통제성이 진로성숙도에 미치는 영향**. 서강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방기용, 강현석(2014). 근거이론을 적용한 교육과정 재구성 저해 요인 분석. **교육종합연구**, 12(3), 23-54.
- 백성열(2018). **학교 생활규칙 개정과 적용과정 연구-학생참여 관점을 중심으로-**. 성공회대학교 NGO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성선진(2010). **청소년의 학교생활적응 관련요인의 인과적 관계 분석**. 충북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 성소연, 배성아(2015). 대학생의 진로결정 자율성, 진로결정자기효능감 및 진로적응성 간의 구조적 관계 연구. **청소년학연구**, 22(9), 277-299.
- 송영란(2007). **고등학생의 진로결정수준, 진로결정자기효능감 및 학교생활 적응과의 관계**. 아주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송현아, 유순화, 윤경미(2010). 대학생의 심리적 독립과 진로결정 자율성이 진로탐색행동에 미치는 영향. **청소년학연구**, 17(11), 263-288.
- 신윤정(2013). 대학생의 진로소명, 진로자기효능감 및 내적동기와 진로적응성의 관계. **상담학연구**, 14(1), 209-226.
- 심우엽(2001). 연령에 따른 학습동기의 변화. **초등교육연구**, 14(3), 19-44.
- 안진영, 유순화, 신채영, 임애경(2017). 고등학생의 미래지향시간관과 진로적응성 간의 관계. **청소년학연구**, 24(3), 83-104.
- 양남희, 홍은실(2011). 고등학생의 가족건강성과 진로성숙도에 관한 연구. **한국가정교육학회지**, 23(4), 143-157.
- 유인선(2011). **청소년의 학교적응요인 메타분석**. 한국교원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유을용(2001). 청소년의 학교생활실태 및 학교생활만족도. **대한가정학회지**, 39(2), 57-72.
- 윤석은(2017). **특성화고 학생들의 부모애착, 진로적응성, 정서지능, 진로결정자기효능감의 구조적 관계 분석**. 건양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 윤찬미(2018). **2015 개정 교육과정의 창의융합교육에 대한 중·고등학교 영어교사의 인식 연구**. 중앙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이규미(2005). 중학생의 학교적응 구성개념에 관한 연구. **한국심리학회지: 상담 및 심리치료**, 17(2), 383-398.
- 이기학(2003). 대학생의 진로선택유형에 따른 진로태도성숙과 진로미결정요인에 대한 연구. **청소년상담연구**, 11(1), 13-21.
- 이범수(2015). **인문계 고등학생의 문화적 성향과 진로결정 자율성, 진로준비행동과의 관계**. 고려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이은주(2001). 몰입에 대한 학습동기와 인지전략의 관계. **교육심리연구**, 15(3), 199-216.
- 이선영(2008). **인문계와 예술계와 실업계 고등학생의 진로의식, 학교적응간의 관계 비교분석**. 이화여자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이수하(2005). **부모애착 및 또래애착과 청소년의 학교생활적응간의 관계**. 이화여자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이순희, 손은령(2012). 대학생의 낙관성이 진로결정수준과 진로적응성에 미치는 영향. **진로교육연구**, 25(3), 181-199.
- 이양숙(2013). **대학생의스트레스와 진로적응성이 삶의 만족도에 미치는 영향**. 단국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이윤호(2009). **다문화가정 아동의 학교적응을 높이는 애착, 자아존중감, 사회적 지지의 영향에 관한 연구**. 고려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이예진(2010). **동기체계이론에 기초한 진로동기수준 군집유형과 진로 적응성의 차이 연구**. 연세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이정숙(2011). **중학생의 자기효능감과 내적통제성 및 진로결정 자율성과의 관계**. 전주대학교 상담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이정아(2014). **대학생의 진로결정 자율성과 진로결정 수준에 따른 진로적응성의 차이**. 단국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이학식, 임재훈(2011). 「**SPSS 18.0 매뉴얼**」. 서울: 집현재.
- 이혜경, 김현주(2007). 청소년의 학교생활부적응에 관한 연구경향 분석. **청소년시설환경**, 5(2), 29-42.
- 이호진, 김완일(2016) 특성화 고등학생의 주도성과 진로적응성의 관계에서 진로결정자기효능감과 강점 활용의 매개효과. **청소년학연구**, 23(8), 311-333.

- 이화경(2008). **고등학생이 지각한 어머니의 양육태도와 학교생활적응간의 관계**. 명지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장계영(2009). **대학생 진로적응성 척도 개발**. 숙명여자대학교 박사학위논문.
- 장계영, 김봉환(2011). **대학생 진로적응성 척도 개발**. **상담학연구**, 12(2), 539-558.
- 장석민, 임두순, 송병국(1991). **진로성숙도 검사 표준화 연구**. 한국교육개발원.
- 장영애, 박정희(2008). **부모의 양육행동 및 부모 자녀 간 의사소통이 아동의 학교생활적응에 미치는 영향**. **한국가족복지학**, 1, 98.
- 정명숙(2015). **영적 안녕과 자아존중감이 고등학생의 학교생활적응에 미치는 영향**. **한국심리학회지: 발달**, 28(4), 55-70.
- 정미숙(2011). **진로성숙도가 비행청소년의 학교적응에 미치는 영향: 보호관찰 청소년 대상으로**. 전북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정애리, 유순화, 류남애(2011). **전문대학생의 진로장애와 진로결정자기효능감이 대학생활적응에 미치는 영향**. **청소년학연구**, 18(12), 535-558.
- 정인순, 안귀여루(2018). **청소년이 지각한 부모와의 의사소통유형이 학교생활적응에 미치는 영향 - 정서지능을 매개 변인으로-**. **청소년학연구**, 25(1), 161-180.
- 정현태(2017). **고등학생이 지각한 가족관계, 담임교사의 의사소통, 자아탄력성과 학교생활적응 간의 구조관계**. 경상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 조봉환(2015). **초중고 학교 진로교육의 실태와 과제**, **한국진로교육학회 추계 학술대회 자료집**, 13-46.
- 조성연, 홍지영(2010). **성인 학습자의 인구학적 변인, 진로결정자기효능감, 진로적응성의 관계연구**. **상담학연구**, 11(3), 1099-1115.
- 조유희(2016). **일반계 고등학생이 지각하는 자율성 지지와 자기결정성 동기가 진로탐색행동에 미치는 영향**. 동국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조은정, 이혜경(2014). **전문대학에 대한 부정적 인식과 진로적응성 관계에서 대학생활적응 요인의 매개효과**. **진로교육연구**, 27(4), 113-127.
- 천경희, 박은아, 송영명(2011). **의과대학생의 자기조절학습이 진로적응에 미치는 영향**. **직업교육연구**, 30(4), 161-177.

- 천수혜(2008). **청소년의 여가활동과 또래애착이 학교생활적응에 미치는 영향**. 대구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최미경(2013). 청소년의 진로성숙도 및 불안과 학교적응간의 관계. **아동학회지** 34(4), 65-81,
- 최미경(2014). 사회적지지가 남녀청소년의 학교적응에 미치는 영향: 삶의 만족도의 매개효과. **대한가정학회지**, 52(6), 651-668.
- 최아라(2017). **청소년의 기질과 사회적지지가 학교생활적응에 미치는 영향: 긍정심리자본의 매개효과**. 전남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 최윤정, 구본정 (2010). 대학생의 진로결정 자율성 하위요인에 의한 진로결정 수준의 차별적 진단. **상담학연구**, 11(4), 1657-1672.
- 최준집(2009). **고등학생의 진로자기효능감과 학교적응간의 관계 연구**. 관동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한은혜(2016). **고등학생의 진로결정 자율성과 교사의 지지가 진로준비행동에 미치는 영향 : 성별과 학급유형의 차이를 중심으로**. 서강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한주옥(2004). **여대생의 자기결정성 수준과 진로미결정과의 관계에서 진로결정 효능감의 매개효과 검증**. 이화여자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허강석(2017). **대학생의 진로준비행동과 정서지능, 진로결정 자율성 및 진로적응력의 구조적 관계**. 서울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Atwater, E. (1979). *Psychology of adjustment: Personal growth in a changing world. Prentice-Hall.*
- Baron, R. M. & Kenny, D. A(1986). The moderator-mediator variable distinction in social psychological research: conceptual, strategic, and statistical considerations.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61(6), 1173-1182.
- Bierman, K. L. (1994). School adjustment. In R. J. Corsini(ed), *Encyclopedia of psychology*. A Wiley-Interscience Publication, John Wiley & Sons.
- Creed, P. A., Fallon, T., & Hood, M.(2009). The relationship between career adaptability, person and situation variables, and career concerns in

- young adults. *Journal of Vocational Behavior*, 74, 219-229.
- Danielsen, A. G. (2009). School-related social support and student' perceived life satisfaction. *Journal of Educational Research*, 102(4), 303-318.
- Deci, E. L., & Ryan, R. M.(2002). *Handbook of Self-Determination Research*, University of Rochester Press. New York: Rochester.
- Guay, F., Senecal, C., Gauthier, L. & Fernet, C. (2003). Predicting career indecision: A self-determinations theory perspective. *Journal of Counseling Psychology*, 50(2), 165-177.
- Guay, F. (2001). *The Career Decision-Making Autonomy Scale*. Unpublished manuscript, Laval University, Quebec, Canada.
- Guay, F. (2003). Predicting career indecision: A self-determination theory perspective. *Journal of Counseling Psychology*: 50, 165-177.
- Guay, F. (2005). Motivations underlying career decision-making activities: The career decision making autonomy scale (CDMAS). *Journal of Career Assessment*, 20, 1-21.
- Herzberg, D. S., Hammen, C. B., Dorli, D., & Shannon, E.(1999). Attachment cognitions predict perceived and enacted social support during late adolescence. *Journal of Adolescent Research*, 14(4), 387-404.
- Hinshaw, R. P. (1962). The concept of Adjustment and Problem of Norm. *Psychological Review*, 49(3), 284-292.
- Hirschi, A. (2009). Career adaptability development in adolescence: Multiple predictors and effect on sense of power and life satisfaction. *Journal of Vocational Behavior*, 74(2), 145-155.
- Marland, S. P. (1974). *Career Education*. NY: McGraw-Hill.
- Pouyand, J., Vignoli, E., Dosnon, O., & Lallemand, N. (2012). Career adapt-abilities scale-France form: Psychometric properties and relation to anxiety and motivation. *Journal of Vocational Behavior*, 80, 692-697.
- Rutter, M. (1985). Resilience in the face of adversity: Protective factors and

- resistance to psychiatric disorder. *British Journal of Psychiatry*, 147, 598-611.
- Ryan, R. M., & Deci, E. L. (2000). The darker and brighter sides of human existence: Basic psychological needs as a unifying concept. *Psychological Inquiry*, 11(4), 319-338.
- Ryan, R. M., & Deci, E. L. (2000a). Self-determination theory and the facilitation of intrinsic motivation, social development, and well-being. *American Psychologist*, 55(1), 68-78.
- Ryan, R. M., & Deci, E. L. (1985). *Intrinsic motivation and self-determination in human behavior*. New York: Plenum.
- Savickas, M. L. (1997). Career Adaptability: An Integrative Construct for Life Span, Life Space Theory. *The Career Development Quarterly*, 45(3), 247-259.
- Savickas, M. L. (2005). The theory and practice of career construction. *Career Development and Counseling: Putting Theory and Research to Work*, 42-70.
- Sepencer, M. B. (1999). Social and cultural influence on school adjustment: The application of an identity-focused cultural ecological perspective. *Educational Psychologist*, 34, 43-57.
- Sharf, R. S. (2016). 진로상담: 아동기부터 성인기까지 진로발달 이론의 적용(제 6판)[*Applying Career Development Theory to Counseling*]. (김진숙, 김정미, 서영숙 역). 서울: 박학사.
- Super, D. E. & Knasel, E. G. (1981). Career development in adulthood: Some theoretical problems and a possible solution. *British Journal of Guidance and Counselling*, 9(2), 194-201.
- Super, D. E. (1951). Vocational adjustment: Implementing a self-concept. *Occupations*, 30, 88-92.
- Vansteenkiste, M., Simons, J., Lens, W., Sheldon, K. M., & Deci, E. L. (2004). Motivating learning, performance and persistence: The synergistic ef-

fects of intrinsic goal contents and autonomy-supportive contexts.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87, 246-260.

<Abstract>

**The Mediating Effect of Career Decision-Making Autonomy
on the Relationship between Adaptation to School Life of
High School Students and Career Adaptation**

Kim Jeongwan

Major in Counseling Psychology, Graduate School of Education,
Jeju National University

Supervised by Professor Kim Sungbong

This study was to investigate the adjustment of school life and career adaptability of high school students and investigate career decision-making autonomy as a main mediator. The purpose of this study was to investigate the relationship between high school students' adaptation to school life, career decision autonomy, and career adaptability. Through the process, this study is to provide the basic data that can be used for career guidance and program development and career counseling to promote career decision-making autonomy at the school site.

The subjects of this study were 800 students in first and second grade male and female students in five high schools in Jeju city. Questionnaires were used to investigate three areas of school adjustment, career decision-making autonomy, and career adaptability, and general characteristics of respondents. School adjustment, career decision-making autonomy, and career adaptability were measured using the measurement tools judged to be

consistent with the purpose of this study.

Collecting data was conducted by each classroom teacher from March 21, 2018 to March 29, 2018. Out of the total 800 samples, 789 were collected and 771 data were used in the final analysis, excluding 18 defective samples that did not respond to one or more of the scales or the same response and outliers.

Data were analyzed using SPSS 18.0 program. In order to identify the relationship between descriptive statistics and measurement variables in order to investigate the general characteristics of the subjects and the mean, standard deviation, frequency, and percentage of each variable, the correlation analysis was conducted. In the relationship between school adjustment and career adaptation, In order to see the mediating role of decision-making autonomy, mediating effect analysis method using regression analysis was used and significance was verified through Sobel test.

The results of the data analysis are as follows. First, career decision-making autonomy and career adaptation were all positively correlated, and the correlation between school adjustment and career adaptation was especially high. Finally, career decision-making autonomy plays a part of mediation in the relationship between school adjustment and career adaptation.

The results of this study suggest that it may provide direction for effective guidance and counseling for high school students to improve their career adaptability.

Key Words : Adaptation to School Life, Career Adaptation, Career Decision-Making Autonomy

부록[설문지]

--	--	--

본 조사의 내용은 통계법 제13조에 의거하여 비밀이 보장되며 통계목적 외에는 사용되지 않습니다.

학생 여러분 안녕하세요?

귀중한 시간을 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본 설문조사는 여러분의 학교생활과 진로 적응을 위한 연구를 위해 제작되었으며 여러분의 응답이 소중한 참고자료가 될 것입니다.

모든 질문에는 정답이 없으므로 각 질문에 대해, 평소 여러분의 생각이나 행동과 일치하는 곳에 솔직하게 답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본 설문지는 연구 이외의 목적으로 사용되지 않으며 무기명 전산 처리되어 철저히 비밀이 보장됨을 약속드립니다.

응답요령(검사시간 : 약 10분 내외)

1. 각 문항을 잘 읽고 **빠짐없이** 응답해 주십시오.
2. 평소 느끼는 대로 표시해 주십시오.
3. 답한 것을 고칠 때는 X표시 하시고 다시 정확하게 답해 주십시오.

2018년 4월

 제주대학교 교육대학원 교육학과 상담심리 전공

연구자 : 김 정 완
(motar11@daum.net)

1. 다음은 여러분의 학교생활에 대한 것입니다. 가장 가깝다고 생각하는 곳에 √표시를 해 주십시오.

번호	문항	전혀 그렇지 않다	조금 그렇지 않다	보통이다	약간 그렇다	매우 그렇다
1	나는 선생님을 만나면 반갑게 인사한다.	①	②	③	④	⑤
2	나는 선생님과 자유롭게 이야기를 한다.	①	②	③	④	⑤
3	학교 밖에서 선생님을 만나면 매우 반갑다.	①	②	③	④	⑤
4	우리 선생님은 나에게 매우 친절하시다.	①	②	③	④	⑤
5	나는 내년에도 지금의 선생님이 담임해 주셨으면 좋겠다.	①	②	③	④	⑤
6	나는 우리 반 아이들 누구와도 잘 어울려 논다.	①	②	③	④	⑤
7	내가 친구에게 잘못했을 때에는 먼저 사과한다.	①	②	③	④	⑤
8	우리 반 아이들이 교과서나 준비물을 가져오지 않으면 함께 보거나 빌려준다.	①	②	③	④	⑤
9	학교에서 친구가 하는 일을 방해하거나 훼방 놓지 않는다.	①	②	③	④	⑤
10	학교에서 놀이나 회의할 때 많은 친구들이 내 의견을 잘 따라준다.	①	②	③	④	⑤
11	공부시간이 재미있다.	①	②	③	④	⑤
12	숙제와 학습준비를 빠짐없이 해 온다.	①	②	③	④	⑤
13	나는 수업시간에 배운 내용을 대부분 이해한다.	①	②	③	④	⑤
14	예습과 복습을 꼭 한다.	①	②	③	④	⑤
15	공부시간에 다른 생각을 하거나 장난치지 않는다.	①	②	③	④	⑤
16	내가 주번일 때 아침 일찍 등교해 정해진 일을 열심히 한다.	①	②	③	④	⑤
17	나는 복도에서 뛰지 않고 조용히 다닌다.	①	②	③	④	⑤
18	학교물건이나 빌린 친구물건을 내 것처럼 소중히 사용한다.	①	②	③	④	⑤
19	화장실이나 수도를 사용할 때 차례를 잘 지킨다.	①	②	③	④	⑤
20	나는 쓰레기를 버릴 때 꼭 쓰레기통에 버린다.	①	②	③	④	⑤
21	나는 조회시간에 애국가를 힘차게 부르고 바른 자세로 교장 선생님 말씀을 잘 듣는다.	①	②	③	④	⑤
22	학교에서 하는 미술, 문예, 발표대회 같은 여러 행사에 관심을 갖고 적극 참여한다.	①	②	③	④	⑤
23	체육대회는 덥고 힘들어도 즐거운 마음으로 꼭 참여한다.	①	②	③	④	⑤
24	봉사활동, 자연보호 같은 행사에 즐거운 마음으로 꼭 참여한다.	①	②	③	④	⑤
25	국경일(삼일절, 제헌절, 광복절, 제헌절)에는 그 뜻을 알고 집에 국기를 단다.	①	②	③	④	⑤

2. 다음은 여러분이 진로를 선택하는 과정에서 할 수 있는 행동(1-8)들입니다. 또한 제시된 행동을 지금하고 있거나, 앞으로 한다고 가정할 때 이러한 행동을 하는 이유 4가지(A-D)가 행동목록 아래에 문항으로 제시되어 있습니다. 행동목록과 해당되는 이유를 잘 읽고 여러분의 생각과 가장 부합하는 칸에 √표시를 해 주십시오.

번호	문항	전혀 그렇지 않다	그렇지 않다	보통이다	그렇다	매우 그렇다
1	진로와 관련된 정보를 구한다. ※ 진로와 관련된 정보 : 전문가와 상담, 지인들과의 대화, 직업인과의 접촉, 인터넷 검색 등					
A	내가 이 행동을 하는 것이 즐겁기 때문이다.	①	②	③	④	⑤
B	내가 이 행동을 중요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이다.	①	②	③	④	⑤
C	내가 이 행동을 하지 않으면 불안함이나 죄책감을 느낄 것 같기 때문이다.	①	②	③	④	⑤
D	내가 이 행동을 하는 것은 다른 사람이 원하기 때문이거나 다른 사람으로부터 보상이나 칭찬, 인정을 받을 수 있기 때문이다.	①	②	③	④	⑤
2	진로관련 프로그램에 대한 정보를 찾아본다. ※ 진로관련 프로그램: 학교, 고용노동부 등의 정부부처, 민간기관에서 제공되는 프로그램 등					
A	내가 이 행동을 하는 것이 즐겁기 때문이다.	①	②	③	④	⑤
B	내가 이 행동을 중요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이다.	①	②	③	④	⑤
C	내가 이 행동을 하지 않으면 불안함이나 죄책감을 느낄 것 같기 때문이다.	①	②	③	④	⑤
D	내가 이 행동을 하는 것은 다른 사람이 원하기 때문이거나 다른 사람으로부터 보상이나 칭찬, 인정을 받을 수 있기 때문이다.	①	②	③	④	⑤
3	진로관련 프로그램 중에, 나의 진로를 개척하기 위해 선택 가능한 대안들을 알아본다. ※ 진로관련 프로그램: 학교, 고용노동부 등의 정부부처, 민간기관에서 제공되는 프로그램 등					
A	내가 이 행동을 하는 것이 즐겁기 때문이다.	①	②	③	④	⑤
B	내가 이 행동을 중요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이다.	①	②	③	④	⑤
C	내가 이 행동을 하지 않으면 불안함이나 죄책감을 느낄 것 같기 때문이다.	①	②	③	④	⑤
D	내가 이 행동을 하는 것은 다른 사람이 원하기 때문이거나 다른 사람으로부터 보상이나 칭찬, 인정을 받을 수 있기 때문이다.	①	②	③	④	⑤
4	진로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부단히 노력한다.					
A	내가 이 행동을 하는 것이 즐겁기 때문이다.	①	②	③	④	⑤
B	내가 이 행동을 중요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이다.	①	②	③	④	⑤
C	내가 이 행동을 하지 않으면 불안함이나 죄책감을 느낄 것 같기	①	②	③	④	⑤

		때문이다.					
	D	내가 이 행동을 하는 것은 다른 사람이 원하기 때문이거나 다른 사람으로부터 보상이나 칭찬, 인정을 받을 수 있기 때문이다.	①	②	③	④	⑤
번호		문항	전혀 그렇지 않다	그렇지 않다	보통이다	그렇다	매우 그렇다
5	진로와 관련 있는 직업들을 알아본다.						
	A	내가 이 행동을 하는 것이 즐겁기 때문이다.	①	②	③	④	⑤
	B	내가 이 행동을 중요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이다.	①	②	③	④	⑤
	C	내가 이 행동을 하지 않으면 불안함이나 죄책감을 느낄 것 같기 때문이다.	①	②	③	④	⑤
	D	내가 이 행동을 하는 것은 다른 사람이 원하기 때문이거나 다른 사람으로부터 보상이나 칭찬, 인정을 받을 수 있기 때문이다.	①	②	③	④	⑤
6	진로관련 프로그램을 성공적으로 완수하기 위해 따라야 할 절차들을 알아본다. ※ 진로관련 프로그램: 학교, 고용노동부 등의 정부부처, 민간기관에서 제공되는 프로그램 등						
	A	내가 이 행동을 하는 것이 즐겁기 때문이다.	①	②	③	④	⑤
	B	내가 이 행동을 중요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이다.	①	②	③	④	⑤
	C	내가 이 행동을 하지 않으면 불안함이나 죄책감을 느낄 것 같기 때문이다.	①	②	③	④	⑤
	D	내가 이 행동을 하는 것은 다른 사람이 원하기 때문이거나 다른 사람으로부터 보상이나 칭찬, 인정을 받을 수 있기 때문이다.	①	②	③	④	⑤
7	진로선택에 있어, 나에게 중요한 가치가 무엇인지 알아본다.						
	A	내가 이 행동을 하는 것이 즐겁기 때문이다.	①	②	③	④	⑤
	B	내가 이 행동을 중요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이다.	①	②	③	④	⑤
	C	내가 이 행동을 하지 않으면 불안함이나 죄책감을 느낄 것 같기 때문이다.	①	②	③	④	⑤
	D	내가 이 행동을 하는 것은 다른 사람이 원하기 때문이거나 다른 사람으로부터 보상이나 칭찬, 인정을 받을 수 있기 때문이다.	①	②	③	④	⑤
8	나의 흥미, 성격과 어울리는 직업에 대해 알아본다.						
	A	내가 이 행동을 하는 것이 즐겁기 때문이다.	①	②	③	④	⑤
	B	내가 이 행동을 중요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이다.	①	②	③	④	⑤
	C	내가 이 행동을 하지 않으면 불안함이나 죄책감을 느낄 것 같기 때문이다.	①	②	③	④	⑤
	D	내가 이 행동을 하는 것은 다른 사람이 원하기 때문이거나 다른 사람으로부터 보상이나 칭찬, 인정을 받을 수 있기 때문이다.	①	②	③	④	⑤

3. 다음은 진로를 준비하는데 활용되는 장점들을 나열한 것입니다. 문항을 잘 읽고 여러분의 생각과 가장 부합하는 칸에 √표시를 해 주십시오.

번호	문항	전혀 그렇지 않다	그렇지 않다	보통 이다	그렇다	매우 그렇다
1	내 미래의 모습은 어떨지에 대해 생각한다.	①	②	③	④	⑤
2	오늘의 선택이 내 미래를 좌우할 수 있다는 점을 인식한다.	①	②	③	④	⑤
3	미래에 대한 준비를 한다.	①	②	③	④	⑤
4	내가 선택해야 하는 교육적·직업적 선택에 대해 인식한다.	①	②	③	④	⑤
5	목표성취를 위한 계획을 세운다.	①	②	③	④	⑤
6	나는 내 진로에 관하여 관심을 갖는다.	①	②	③	④	⑤
7	긍정적인 태도를 유지한다.	①	②	③	④	⑤
8	내 스스로 결정을 내린다.	①	②	③	④	⑤
9	내 행동에 대해 책임을 진다.	①	②	③	④	⑤
10	내 신념을 따른다.	①	②	③	④	⑤
11	내 자신을 믿는다.	①	②	③	④	⑤
12	나에게 적합한 일을 찾는다.	①	②	③	④	⑤
13	내 주변 환경을 탐색한다.	①	②	③	④	⑤
14	한 개인으로 성장할 수 있는 기회를 찾는다.	①	②	③	④	⑤
15	선택을 하기 전 다른 대안들을 탐색한다.	①	②	③	④	⑤
16	주어진 문제를 해결하는 데에 있어서 다양한 방법들을 탐색한다.	①	②	③	④	⑤
17	내가 가지고 있는 문제에 대해 깊이 탐색한다.	①	②	③	④	⑤
18	새로운 기회에 대해 호기심을 갖는다.	①	②	③	④	⑤
19	주어진 과업을 효율적으로 수행한다.	①	②	③	④	⑤
20	일을 잘 처리한다.	①	②	③	④	⑤
21	목표달성, 문제해결 등을 위해 새로운 것을 배운다.	①	②	③	④	⑤
22	주어진 문제의 해결, 목표의 달성에 있어서 내 능력을 충분히 발휘한다.	①	②	③	④	⑤
23	목표추진, 과제해결 과정 등에서 나타나는 어려움을 극복한다.	①	②	③	④	⑤
24	주어진 문제를 잘 해결한다.	①	②	③	④	⑤

4. 다음은 귀하의 일반적인 사항에 대한 질문입니다. 해당하는 번호에 √표시 해주시기 바랍니다.

1. 성별 : ① 남() ② 여()

2. 학년 : ① 1학년() ② 2학년() ③ 3학년()

3. 학교 : ① 일반고() ② 특성화고()

한 문항이라도 제외될 경우 연구 자료로 쓸 수 없으니 다시 한 번 확인 부탁드립니다.

- 설문에 응해 주셔서 정말 감사드립니다. -